

한국 성소수자 청년을 말하다

국회토론회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결과발표
: 차별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2022. 02. 03. 목요일 9:30AM - 12PM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온라인 중계 동시 진행 

사회 | 심기용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

발제 | 정성조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연구책임자)

토론 | 이호림 (고려대학교 보건과학과 보건학박사)

정민석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평동 대표)

이승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최준석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팀 조사관)

김보경 (통계청 통계정책과 과장)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구상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사업총괄본부장)

주최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 / 국회부의장 김상희 / 국회의원 강민정 강은미 권인숙 류호정 박주민
배진교 심상정 용혜인 유정주 이동주 이상민 이은주 이탄희 장혜영 /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문의 | 다음 dawoom@dawoom-t4c.org, 권인숙 의원실 02-784-9241, 장혜영 의원실 02-784-1845

한국 성소수자 청년을 말하다 국회 토론회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결과발표:
차별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주최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국회부의장 김상희

국회의원 강민정 강은미 권인숙 류호정 박주민 배진교 심상정

용혜인 유정주 이동주 이상민 이은주 이탄희 장혜영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목 차

Ⅰ 인 사 말 Ⅰ	한성진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 대표 5
	김상희 국회부의장 7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9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국회의원 1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3
	권인숙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5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정책위원회 의장 17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19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21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23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25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27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9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1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33
Ⅰ 소 개 Ⅰ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 소개 36
Ⅰ 발 제 Ⅰ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결과
	정성조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 39
Ⅰ 토 론 Ⅰ	청년 성소수자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할 때
	이호림 고려대학교 보건과학과 보건학박사 89
	“청년이 되면 우리 사회가 나아질 거라 말할 수 있을까요?”
	정민석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핑동 대표 95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토론문

이승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99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최준석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팀 조사관 102

성소수자 통계조사 관련 논의

김보경 통계청 통계정책과 과장 116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해외의 입법례와 시사점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21

청년 성소수자 자살예방 활성화 방안

이구상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사업총괄본부장 126

_OX

인 사 말



인사말

한성진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표

안녕하세요,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의 대표 한성진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평등과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국회에서 ‘한국 성소수자 청년을 말하다’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본 토론회는 다움이 지난해 실시한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911명의 성소수자 청년들의 소중한 응답이 담긴 이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한국 성소수자 청년의 삶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에 부딪히고 있고, 사회적인 낙인과 혐오에 둘러싸여 자신을 당당히 드러낼 수 없는 조건들이 청년 성소수자들을 아프게 하고 위협에 놓이게 만들고 있음을 알리고자 노력해왔습니다.

21대 국회에 들어와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을 여러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해주시면서, 국회에서도 성소수자와 한국에서 살아가는 소수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다시금 생겼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오늘 공동주최해주신 의원님들과 국회 여성·아동 인권 포럼을 만날 수 있었고, 함께 성소수자 청년들이 겪는 현실에 깊이 공감하여 결국 오늘 소중한 논의의 장이 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평등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동료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매우 뜻깊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설립 이래 102주년이 되고, 광복 77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그동안 국회에서 성소수자의 삶에 귀를 기울이고 생산적으로

논의할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전에도 성소수자를 다루는 국회토론회는 있었지만, 많은 경우 교리적인 이유로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전환치료를 주장하는 등 차별과 혐오에 발언권을 주는 자리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국회의 풍경이 달라져야 합니다. 사회구성원을 모욕하고 아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살리는 국회여야 합니다. 마음을 모아주신 오늘 이 국회토론회가 성소수자가 겪는 차별 현실에 대한 정책대안들을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논의하게 되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한국 성소수자 청년을 말합니다. 올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지방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계속 청년의 표심을 묻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정책 중 성소수자 청년을 고려하는 정책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소수자 청년은 청년 일반에 비해 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 정치, 사회, 노동, 주거, 정체성, 관계 등 전반에서 성소수자 청년만의 특수한 경험과 욕구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건강 분야에서의 지표가 매우 열악하게 나와 긴급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만, 부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조금이라도 성소수자 청년의 의견과 상황에 대해서 알릴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2.02.03.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 대표 **한성진**

인 사 말



김 상 희 국회부의장

반갑습니다. 국회부의장 김상희입니다.

「한국 성소수자 청년을 말하다」 국회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소수자의 차별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준비 과정이 녹록지 않았음에도 토론회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과 국회 여성·아동 인권포럼, 그리고 동료 의원이신 강민정, 강은미, 권인숙, 류호정, 박주민, 배진교, 심상정, 용혜인, 유정주, 이동주, 이상민, 이은주, 이탄희, 장혜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안했습니다. 무려 15년이 지났지만, 아직 입법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21대 국회에는 장혜영 의원님의 「차별금지법안」, 이상민 의원님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박주민, 권인숙 의원님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과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각각 발의되어 있습니다. 4개의 법안이 발의된 것만으로도 국민의 열망과 관심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9명이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한 사실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10만 명이 동의하는 등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거스를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전 사회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국회 토론회를 통해서 성소수자 인권과 청년 성소수자 의제가 확산해 나가길 희망하며, 입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02.03.

국회부의장 김상희

인사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상민입니다.

오늘 “한국 성소수자 청년을 말하다” 국회 토론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울러서 함께 행사를 준비해주신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은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해 2020년에 발족한 청년 활동가 단체입니다. 짧은 역사 속에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여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낸 것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청년 성소수자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청년의 다양성이 가치있는 삶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한국에서 청년의 생애주기를 살아가고 있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등 성소수자들의 정치적 욕구, 사회적 관계망, 노동 및 경제, 건강, 주거 등 대규모 종합연구조사의 실태파악을 최초로 진행하여 발표하는 유의미한 행사입니다.

연구조사에 따르면 청년 성소수자들이 청년 정책에서 배제되어 주체도 지원대상도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여러 개별법이 있으나, 장애와 같은 특정 사유별 차별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지만, 여전히 다양한 차별 현실을 개선하는데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다양한 속성이 전부 차별받지 않도록 포괄적인 법률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

한 연구를 통해, 앞으로 성소수자들이 필요한 정책이 더욱 활발하게 논의되고 평등법의 필요성이 널리 알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차별을 경험한 청년들이 기대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심도 있는 방안이 논의되길 바라며 국회에서도 적극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시국에 건강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2.02.03.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민



인 사 말

심 상 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
정의당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통령후보,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회에서 ‘청년 성소수자 시민들이 겪고 있는 차별 실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회원님들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귀한 시간 내어 토론회에 참가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대통령 선거기간입니다. 하루가 멀다고 청년들을 겨냥한 공약들이 여야 후보들 입을 통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말 중에서 청년 성소수자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나 공약은 한마디도 들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년 세대에 대한 최근의 높은 사회적 관심도에 비례해서 정책개발을 위한 다양한 실태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청년 성소수자들의 삶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숫자나 통계가 한사람, 한사람의 고통과 슬픔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고 하지만 이런 숫자에서도 청년 성소수자들은 지워져 있는 것입니다.

청년 성소수자들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성소수자 차별과 불평등 구조 속에서 경제적 의존상태인 청년으로서 더 무거운 존재 부정과 존엄성 훼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들 문제의 해결은 정확한 현실진단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성소수자 청년들의 삶이 정책적

필요로 전환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가 마련해야 합니다. 직업 선택, 학교 및 직장생활, 건강, 주거, 차별 경험 등 인구 사회학적 정보가 분석되어야 필요한 제도적 지원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했을 때 약 4천여 명의 청년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활동가, 연구자, 행정부처 등 각계 전문가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공적으로 논의하게 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다방면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국가 통계에 반영되고 있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도 국가적 차원의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조사와 통계는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입니다.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안된 지 1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일부 개신교의 조직적인 반대와 정치권의 의도적인 무관심 속에 지금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소수자 차별을 해결하는 큰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우리 사회에서 지워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지키고 대변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02.03.

정의당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심상정

인 사 말


박 주 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이번 「한국 성소수자 청년을 말하다」 국회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번 토론회에 흔쾌히 참여해 주신 정성조 연구책임자님, 이호림 박사님, 정민석 대표님, 이승윤 부위원장님, 송효진 연구원님, 이구상 본부장님, 김보경 과장님, 최준석 조사관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 보이는 곳에서 묵묵히 애써 주신 실무진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어떤 성소수자가 인터뷰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해서 아세요?”라고 물으면 대부분 ‘하리수?’ ‘홍석천?’ 이라고 답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커밍아웃을 하고 한창 활동하였던 게 벌써 20여 년 전 일이거든요. 그동안 세상은 많이 바뀌었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여전히 2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처럼 현실이 과거에 멈춰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번 토론회가 더욱 의미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초로 청년 성소수자들이 어떠한 차별을 겪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한 결과를 공개하고, 우리 옆에 살아 숨쉬는 청년 성소수자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청년 성소수자들이 가장 크게 바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평등(차별금지)법’ 제정이었습니다.

이미 국회에는, 제가 발의한 평등법을 포함하여 모두 네 건의 평등(차별금지)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발의는 되었으나 아직 제정되지 못한 이 법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반갑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이 청년들의 바람을 잊지 않고 평등(차별금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까지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02.03.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인사말



권인숙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말 반갑습니다.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대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입니다.

“한국 성소수자 청년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참 중요한 시기에 의미 있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성소수자 인권단체 ‘다움’과 그리고 평등법 발의 의원 열다섯 명이 뜻을 모았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상민, 박주민, 장혜영 의원님과 공동발의부터 이번 토론회 개최까지 함께해주신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심상정 의원님, 강민정,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용혜인, 유정주, 이동주, 이은주, 이탄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연말, 청년 성소수자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너에게 가는 길」 국회상영회를 개최했습니다.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정규직 일자리에 지원하지 못하는 등 성소수자 청년들이 겪는 고충과 그 가족들의 아픔이 생생히 담긴 영화였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기다림의 시간을 끝내고 혐오와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법을 반드시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성소수자 청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대규모 실태조사의 결과발표 자리이자, 성소수자 청년을 본격적인 정책의제로 다루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 성소수자들은 구직과정에서부터 직장 내에서까지 차별을 경험하는 비율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울감 척도에서도 응답자 중 2명 중 1명이 최근 1주일내

우울증상을 겪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막 첫발을 내딛는 청년 세대에게는 취업과 주거 등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청년 성소수자들이 겪어야 하는 현실은 더욱 가혹합니다. 학교와 가정, 나아가 구직과정과 직장 내에서까지 혐오와 차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이들을 위해서 제도개선이 시급하지만, 아직 적극적인 논의도 시작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평등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성소수자 청년 여러분께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청년 성소수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면밀히 살피고,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모아 평등법 제정을 비롯한 여러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논의의 물꼬를 터 주셨으니, 이 물길을 잘 따라서 혐오와 차별없는 사회라는 바다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에 감사드리며, 소중한 발걸음 해주신 토론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2.02.03.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인숙



인사말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성소수자, 그중에서도 청년 성소수자를 주제로 한 대규모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되는 것이 오늘이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쁨, 기대감과 동시에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와 정치가 복합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청년 성소수자들의 삶에 무관심했다는 점을 드러내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참 아픈 2021년이었습니다. 한 해동안 저희는 많은 친구와 동지들을 잃었고, 많은 고비를 넘겨 왔습니다. 가슴 아픈 소식들에 슬퍼하기도 하고, 새로운 방식의 연대를 모색하며 혐오와 차별에 힘차게 맞서기도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더 이상 사랑하는 동료 시민들을 잃지 않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자리입니다. 청년 성소수자 시민들이 겪고 있는 차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한국 성소수자 청년을 말한다> 토론회는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이 수행한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조사> 결과발표회를 겸하여 진행됩니다. 성소수자 연구의 역사에 오랫동안 남을 연구조사를 진행해 주신 다음의 정성조, 김보미, 허성원, 심기용, 한성진 연구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기용, 정성조 선생님께서는 오늘

각각 사회자와 발제자로도 나서 주실 예정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연구자, 정부부처 담당자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려대 보건과학과 이호림 박사님,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명동의 정민석 대표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이승윤 부위원장님,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팀 최준석 조사관님, 통계청 통계정책과 김보경 과장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송효진 연구위원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구상 사업총괄본부장님께서 나누어 주실 목소리들을 소중히 받아안아, 실제 청년 성소수자들의 삶을 위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오늘 무엇보다 기쁜 점은, 청년 성소수자의 삶과 권리를 말하는 토론회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공동주최로 함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박주민, 유정주, 이동주, 이상민, 이탄희 의원님, 정의당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의원님,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님, 무지개빛으로 가득한 국회를 만드는 데 마음을 모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는, 아마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심상정 후보의 '1분'을 또렷이 기억하실 겁니다. 저와 정의당은 앞으로도 지워진 사람들의 '1분'을 지켜내겠습니다. 지워질 수 없고, 지워져서도 안 되는 시민들을 대변하기 위해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더욱 단단하게 손을 맞잡고, 혐오에 맞서 함께 세상을 바꾸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2.02.03.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인 사 말

강 민 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입니다.

오늘 청년 성소수자 차별 실태 및 사회정치적 욕구에 관한 연구 발표회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및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 발표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성소수자의 인권은 여전히 '사회적 합의'라는 허울 아래 나중으로 미뤄집니다. 헌법적 평등 정신의 실질적 작동을 위하여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발의 후 1년하고도 반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것에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늦춰지는 동안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배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마주했고, 소중한 동료들을 잃었습니다. 성소수자들은 오늘도 노동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일상 속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이의 정체성을 승인하는 사회가 아닌,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발표회가 청년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고 성소수자에 대한 문화적·제도적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이 존엄하게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서 저도 국회의원이자 시민 한 사람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차별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 성소수자들에게 위축되지 말고 부디 당당하게 살아나가자고 응원과 연대의 마음을 보냅니다. 이번 발표회를 준비하고 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2.02.03.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강민정



인사말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입니다.

‘한국 성소수자 청년을 말하다’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청년 성소수자의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수행 결과를 최초로 공개하고, 성소수자 청년들의 현실에 대해 정책적 방향과 대안을 고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성소수자, 특히 청년들에 대한 논의는 공식 석상에서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였습니다. 이들은 청년이자, 성소수자로 사회적 약자에 이중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성소수자 문제가 논의되지 못하면서, 이들은 청년 정책에서 주체도, 제대로 된 지원 대상도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약 4천여 명의 청년 성소수자 실태 현황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그 의제를 공적으로 논의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소수자 청년의 현실을 파악하는 것은 정확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정치적 욕구, 사회적 관계망, 노동 및 경제, 건강, 주거, 차별 경험, 인구사회학적 정보 등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필요한 제도적 지원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 발제를 맡아주신 정성조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다움) 연구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토론을 맡아주신 고려대학교 보건과학과 이호림 박사님, 정민석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평동 대표님, 이승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님,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 이구상 생명존중희망재단 사업총괄본부장님, 최준석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팀 조사관님, 김보경 통계청 통계정책과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 개최를 위해 노력해주신 다움과 국회 여성·아동 인권 포럼 그리고 공동주최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가 청년 성소수자 의제를 논의하는 첫 자리인만큼 다양한 주제가 제시되고 토론되어 향후 지속적인 공론화로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그 시작이 중요합니다. 오늘 자리를 디딤돌 삼아 앞으로도 청년 성소수자에 대한 꾸준한 논의를 통해 의제를 확산하고 정책으로 제시하여 법제도개선까지 이어지도록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02.03.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인 사 말

류 호 정 정의당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한국 성소수자 청년을 말하다〉 연구 발표회를 함께 주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사 준비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 시민은 명백히 차별받는 존재입니다. ‘동성애 반대’ 따위가 담론의 탈을 쓰고 등장할 정도니, 성소수자에 관한 물이해를 넘어 혐오가 가득한 사회임을 여실히 느낍니다. 가뜩이나 청년에게 어려운 시대에, 성소수자 청년은 혐오의 무게를 더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성소수자 청년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도 따갑지만, 이들을 포섭하는 제도 역시 빈약합니다. 트랜지션(성전환)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트랜스젠더 청년들은 큰 부담을 지게 되고, 동성커플은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갈 수 없으며, 성소수자 청년은 성정체성 때문에 채용의 기회를 빼앗기기도 합니다. 모두 차별금지법조차 없는 나라에서 빈번한 일입니다.

2016년 국가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 10명 중 9명이 혐오표현을 마주했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배제된 경험이 사회적 고립감을 넘어 심리적 고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 건강위험을 관망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저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여름, 퀴어퍼레이드에 참여했습니다. 광장에서 손을 맞잡고 연대의 노래를 부르며 안전한 공간에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광장을 넘어, 어디에서나 우리의 존재가 존중받을 수 있게 사회적 인식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연구 발표회가 그 단초가 될 것입니다. 청년 성소수자의 정치적 욕구부터 노동, 건강, 주거까지 필수불가결한 부분에 관한 실태조사, 이에 따른 담론이 풍부하게 펼쳐질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들이, 청년 성소수자들이 ‘내 삶을 오롯이 살 수 있게’ 하는 정책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늘 그랬듯 그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02.03.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인 사 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한국 성소수자 청년을 말하다’ 제목이 참 좋습니다. 못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던 것을 먼저 발견하여 드러내는 것이 모든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지만, 잘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성소수자들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조사를 불러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자리를 위해 수고해주신 ‘다움’의 한성진 대표님과 구성원 여러분, 그리고 국회 여성·아동 인권 포럼과 공동 주최로 함께해주신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노력은 다양성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여는 소중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라고들 합니다. 소득수준이나, 정치적 민주화 정도를 보면 대략 그럴 만도 하지만, 사회의 다양성과 인권 면에서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동성혼은 물론이고, 차별금지법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반발도 무척 거셉니다. 때로는 산업화를 위한다는 핑계로, 때로는 민주화를 위한다는 핑계로, 계속 ‘나중에’로 미뤄온 결과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전체가 미뤘지만, 그 참혹한 결과를 마주하는 이들은 성소수자 당사자들입니다. 작년에도 고 변희수 하사를 비롯해 많은 사람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고통받고,

또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나무임을 감출 수 없듯이,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손을 맞잡고, 세상으로 나가 맞서 싸우고, 이겨낼 것입니다. 변곡점은 이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끊임없는 움직임은 물론이고, 국회에서 이처럼 청년 성소수자를 주제로 한 대규모 토론회가 열리는 것도 하나의 징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마침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정의당은 소외되고, 가려지고, 어딘가 잘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워진 사람들을 향합니다. 그들이 바로 6411번 버스 첫차에 타는 새벽 출근길의 노동자들이고, 시설에 갇힌 장애인들이고, 우리 곁에 항상 있지만, 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 소수자들입니다. 이분들이 냄새 맡을 수 있고, 손잡을 수 있는 곳으로, 정의당은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02.03.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

인 사 말


용 혜 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한국 성소수자 청년을 말하다〉 국회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년 성소수자들의 실태와 사회적 욕구 해결을 위한 뜻깊은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3,900여 명에 달하는 설문조사와 45명의 면접조사를 통해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조사’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한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과 정성조, 김보미, 심기용, 한성진 연구진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 연구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생애주기적 관점에서의 청년 성소수자의 욕구와 실태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성소수자 청년과 성소수자 일반에 대한 정책제언 역시 가능하리라 기대합니다.

위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성조 연구책임자님의 발제문은 1) 청년 성소수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한다. 2) 성소수자 친화적인 노동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3) 성소수자 친화적인 의료 및 상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시급하다. 4)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5) 다양한 성소수자 정체성 집단의 구체적인 욕구와 인식에 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공동발의하고 ‘군대 내 동성애 처벌법’인 균형법 92조6 폐지를 추진하는 등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청년 성소수자의 욕구와 목소리를 지워내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지워지지 않도록 그리하여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는 사회

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로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아주신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의 심기용님, 큰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발제해주실 정성조님 감사합니다. 토론으로는 고려대학교 보건과학과 보건학박사 이호림님,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평동 대표 정민석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이승윤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송효진님, 생명존중희망재단 사업총괄본부장 이구상님,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팀 조사관 최준석님, 통계청 통계정책과 과장 김보경님께 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토론해주시는 말씀 기억하며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청년 성소수자의 욕구와 다양성을 드러내어 차별 없는 대한민국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2.02.03.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혜인**



인 사 말

유 정 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정주입니다.
 ‘한국 성소수자 청년을 말하다 토론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최근 청년 세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맞춤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 성소수자의 삶에 대한 관심은 매우 소극적입니다. 국가의 미래인 청년을 위하겠다는 비전 안에 성소수자 청년이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비단 청년 성소수자만의 문제가 아닌 차별 없는 시선, 인권에 대한 고찰입니다.

성소수자 인권 증진 청년 활동가 단체 ‘다움’에서 진행한 <2021년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에서 “성소수자가 살아가기에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좋지 않다.”라고 대답한 청년이 전체의 97.1%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냉정한 성적표입니다. 여전히 혐오와 차별 속에 있는 우리 사회의 민낯입니다.

사람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담화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부터 차별이 담긴 시각 아닐지요.

성소수자에 대한 편협한 시각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입니다. 조심스럽고 소극적인 태도를 과감하게 떨쳐내고 넓은 시각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함께 당당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는 청년 성소수자들이 어떤 차별

을 겪고 있는지, 이들의 사회적 욕구는 무엇인지,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더 열성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더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치 보기가 아닌 우리 청년을 위한 관심과 사랑일 것입니다.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청년 성소수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은 분명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22.02.03.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정주

인 사 말


이 동 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이동주입니다.

「한국 성소수자 청년을 말하다 국회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상희 부의장님, 강민정, 강은미, 권인숙, 류호정, 박주민, 배진교, 심상정, 용혜인, 유정주, 이상민, 이은주, 이탄희, 장혜영 의원님과 다양성을 향한 지속 가능한 움직임(다음), 국회 여성·아동 인권 포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포용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여전히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사회 2019' 보고서에 따르면 2001~2014년 한국의 동성애 수용도는 10점 만점에 2.8점으로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낮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의 평균 점수인 5.1점보다 낮은 점수입니다.

성소수자의 실태조사 또한 부재한 상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 '성정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와 2020년 '트랜스젠더 혐오 차별 실태조사'를 제외하면 현재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 단위의 실태조사는 없습니다.

OECD는 동성애 수용도가 낮다는 것은 성소수자를 차별의 위협에 내몰 수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하며 성소수자들이 당면한 불이익을 국가통계로 시각화하는 것이 이들을 포용하기

위한 선결 과제라고 권고합니다.

이에 반하여 성소수자를 향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활발합니다. 2011년에 국제 연합 인권 이사회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범죄와 차별, 성소수자 처벌과 성소수자 권리 증진을 도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유럽의회도 2021년 유럽연합 전역에서 성소수자는 편협과 차별,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공개하고 살 수 있는 자유를 누려야 한다며 EU 27 개 회원국 전체를 ‘성소수자 자유 지역(LGBTIQ Freedom Zone)’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성소수자의 문제는 우리 사회로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의도적인 무관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청년 성소수자들은 혐오 발언과 차별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무관심’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태도와 차별을 무관심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방치되어 왔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성소수자를 향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해결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다양성을 향한 사회 인식 변화와 관련 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재의 수많은 어려움에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2.02.03.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동주

인 사 말



이 은 주 정의당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입니다.

‘한국 성소수자 청년을 말하다’ 토론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성소수자 청년을 주제로 한 첫 국회 토론회입니다. 우리 사회에 가려져 있던 성소수자 청년의 목소리가 대한민국 정치의 심장인 국회까지 닿았다는 매우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행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에서 청년 성소수자 3,911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종합 연구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청년 성소수자의 사회정치적 욕구 및 실태를 확인한 최초의 조사입니다. 국회가 청년기본법을 제정한 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다양한 청년들의 이해와 요구가 담긴 정책은 아직 요원합니다. 특히 청년 성소수자는 청년 정책에서 그동안 배제됐으며 청년 정책의 주체도, 지원 대상도 될 수 없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발표되는 조사 결과는 소수자 청년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청년 정책에 반영하는데 기초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의 사회와 발제를 맡아주신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의 심기용 님, 정성조 연구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론에 참여해주시는 고려대학교 보건과학과 이호림 박사님,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평동의 정민석 대표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이승윤 민간 부위원장님, 국가인권위 성차별시정팀 최준석 조사관님, 통계청 김보경 과장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송효진 연구위원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구상 본부장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정의당의 청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와 정의당은 청년 성소수자가 시민으로서 권리를 당당히 누릴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올해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 성소수자 청년 여러분들이 일터나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고, 사회정치적 요구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02.03.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소 개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 소개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이하 '다음')은 한국 청년 성소수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 모인 청년 인권단체입니다. 2020년 1월에 창립한 신생단체이기도 합니다.

청년을 위한다며 청년 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요즘인데도, 성소수자 청년을 고려한 정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소수자 청년은 군대, 대학, 기업, 가정, 공공장소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거의 모든 공간에서 차별의 문턱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국의 10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사회적 차별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취약함이 20대가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사히 늙을 수 있을까?’ 많은 성소수자 청년들이 하는 고민입니다. 일상 속에서 스스로 숨기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어느샌가 차별에 체념한 채 살아가는 청년 성소수자의 현실을 바꾸고 싶습니다. 커밍아웃할 수 있는 사회, 커밍아웃해도 별다른 불이익과 사회적 낙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꿈꿉니다.

다음의 비전

다음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 청년 정책에서 성소수자가 배제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성소수자 청년 지원 정책 개발
- 성소수자 인권 개선에 있어 청년 생애주기를 특정하여 의제화
- 성소수자 인권 개선에 의지가 있는 청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 지원

다움과 함께하기

다움은 성소수자 인권을 개선하고자 하는 청년 활동가들이 다움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지속 가능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참여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1. 다움을 통해서 사회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은 회원 가입을 문의해주실 수 있습니다.
2. 다움이 더 의미 있고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후원자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3. 다움의 뉴스레터를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dawoom@dawoom-t4c.org

홈페이지 <https://dawoom-t4c.org>

페이스북 @dawoom.t4c

트위터 @dawoom_t4c

인스타그램 @dawoom_t4c



다움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발 제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결과발표: 차별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발제문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결과

정성조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수료

1. 서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안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차별이 심각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음에도 이러한 문제가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어 온 것이다. 특히 보수 개신교 집단의 조직적인 반대와 정치권의 의도적인 무관심 속에 많은 청년 성소수자들은 혐오 발언과 차별을 온몸으로 받아내 온 지난 시간이었다. 더불어 청년 세대 담론이 ‘젠더 갈등’으로 담론화되고 페미니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덩달아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 담론 또한 거세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성소수자가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경험하는 차별의 현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와 2020년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를 제외하면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 단위의 차별실태조사는 부재한 상황이며, 차별실태를 제외한 사회적 욕구 및 커뮤니티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조사는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가 실시한 2014년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가 유일하다.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다방면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국가 단위 통계에 항목으로 반영되고 있는 해외 사례에 비추어보면 대단히 부족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최근 청년 세대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관심이 늘어나면서 청년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청년 실태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청년 성소수자의 삶은 배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변화와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건’ 등으로 인한 영향 등을 파악할 필요 또한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청년 성소수자의 사회적 욕구 및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설문조사 질문지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내 청년 실태조사 및 성소수자 실태조사, 해외 성소수자 실태조사를 검토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는 설문조사와 면접조사의 조사 내용과 대상, 조사 과정과 자료의 분석에 대해 정리하였다. 다음으로는 본격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를 정체성과 커뮤니티, 차별과 혐오, 사회적 환경과 정치적 욕구, 건강과 성생활, 구직과 직장 경험, 가구 형태와 주거 독립, 바라는 점 등의 주제별로 정리하고, 면접조사 결과를 활용해 이러한 결과에서 나타난 청년 성소수자의 욕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이러한 결과가 갖는 함의와 제언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2. 연구 방법과 연구 내용

1) 설문조사

설문조사 문항의 구성은 국내외에서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책임 연구자 및 공동연구자가 초안을 작성한 후, 전체 연구진이 여덟 차례의 회의를 거쳐 수정하였다. 이후 외부 전문가 7인의 자문을 거쳐 최종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크게 설문조사 대상 확정을 위한 스크린 문항, 성소수자 정체성과 커뮤니티, 차별과 혐오, 사회적 환경과 정치적 욕구, 건강과 성생활, 구직과 직장 경험, 가구 형태와 주거 독립, 인구사회학적 정보, 사례비 지급을 위한 추가 정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설문조사 문항을 통해 청년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어떠한 분포로 구성되어 있는지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고, 일반 청년과 구분되는 청년 성소수자의 특수한 경험과 욕구는 무엇인지, 전반적인 성소수자 차별 실태는 어떠한지 파악하고자 했다.

표 1 설문조사 조사 내용

항목	주요내용
기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문조사 대상자 여부
정체성 및 커뮤니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성별 정정 및 관련 의료적 조치 정체화 시기 및 정체화 과정의 어려움 커밍아웃 시기와 대상 커밍아웃의 반응과 차별 경험 내면화된 동성애혐오 및 트랜스혐오 연애 관계 및 파트너십 욕구 성소수자 커뮤니티 참여 경험 및 바라는 점 성소수자 커뮤니티 연결감
차별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소수자여서 좋은 점 최근 1년 차별 경험 차별 경험에 대한 대응 군복무 경험 및 차별 경험
사회적 환경 및 정치적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사회 평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 및 정치적 영역 선호 정당 및 차기 대선후보 정치성향 인권단체 후원 여부 및 이유 페미니스트 여부 및 페미니즘 의제 선호도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건강 및 심리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적 건강 상태 및 행복도 우울증 및 자살 장애 및 HIV/AIDS 상태 성관계 및 약물 사용 경험
노동 및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직 경험 현재 취업상태 및 고용 형태 직장에서의 차별 경험 직장에서의 욕구
가구 형태 및 주거 독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소득 및 가구 구성 형태 주거 독립 여부 및 요인
인구사회학적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생연도, 최종학력, 직업, 수입, 혼인상태, 거주지역, 종교, 주관적 계층 인식 등
추가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문 참여 경로 및 추가 면접조사 참여 의향

설문조사 대상은 최근 10년간 한국에 거주한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스스로 성소수자라고 정체화 하고 있는 사람이다.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로 살아오면서의 경험과 욕구, 인식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 대상을 최근 10년간 한국에 거주한 자로 제한하였으며, 최근 청년 대상 실태조사가 청년기본법에 따라 만19세에서 만34세로 연령을 제

한하고 있기에 비교를 위해 동일한 연령 기준을 사용하였다.

일반 청년 대상의 조사들이 연령과 성별,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층화 표집을 실시하는 것과 달리, 성소수자의 경우 정확한 모집단을 알 수 없다는 한계로 인해 무작위 표집을 실시할 수 없었다. 설문조사 대상을 모집하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더불어 온라인 설문조사를 홍보하기 위해 성소수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SNS)와 커뮤니티 사이트, 만남 어플리케이션, 에브리타임 등의 매체를 활용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설문조사 사이트인 쉐트릭스(Qualtrics)를 통해 수행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1년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21일간 1차로 실시하였으며,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젠더퀴어 대상의 추가 조사를 2021년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6일간 2차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참여자는 온라인 소셜미디어(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온라인 성소수자 커뮤니티, 성소수자 만남 어플리케이션, 각 대학의 에브리타임 성소수자 게시판, 성소수자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모집하였다. 홍보를 위해 설문조사의 목적과 내용, 참여 방법 등을 담은 포스터와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설문조사 응답을 끝까지 완료한 참여자에게는 휴대폰 번호를 입력받아 4,000원 상당의 커피교환권을 기프트콘으로 지급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하고자 쉐트릭스 설문지에 접속한 참여자는 총 6,764명이었다. 이들 중 연구 참여 및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참여자(n=32)와 본 연구의 참여 대상이 아닌 참여자(n=1,218), 설문 문항에 끝까지 응답하지 않은 참여자(n=1,603)를 제외한 3,911명을 최종적인 설문조사 응답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본 설문의 응답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입되었다. 가장 많은 유입 경로는 트위터로 전체의 34.6%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답엘(13.7%), 친구 및 지인의 소개(8.9%), 에브리타임(7.7%), 온라인 성소수자 사이트(7.5%), 카카오톡·라인 등 단톡방(7.3%), 잭디(5.5%), 인스타그램(5.2%), 이반시티(4.5%), 페이스북(2.9%), 유튜브(1.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설문조사 유입 경로

전체(N)=3,911	N	%
트위터	1,353	34.6
답엘	537	13.7
친구 및 지인의 소개	346	8.9
에브리타임	300	7.7
온라인 성소수자 사이트	295	7.5

카카오톡 등 단톡방	284	7.3
잭디(JackD)	215	5.5
인스타그램	204	5.2
이반시티	177	4.5
페이스북	114	2.9
유튜브	49	1.3
기타	25	0.6
포털검색	11	0.3
오프라인홍보	1	0

켈트릭스 서버에 저장된 응답을 내려받아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을 위한 통계 프로그램으로는 STATA/IC 14.2와 IBM SPSS 26을 사용하였다. 서버에서 내려받은 원시자료(RAW data)에서 분석에 필요한 변수를 생성하여 전체적인 응답의 분포를 살펴보았으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연령대 등의 범주에 따라 구분한 청년 성소수자 집단 내부의 차이 및 일반 청년 인구 집단과의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2) 면접조사

설문조사를 통해 청년 성소수자의 사회적 욕구 및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한 뒤, 청년 성소수자의 보다 구체적인 경험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 및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FGI는 비슷한 경험을 지닌 이들 사이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유도함으로써 특정 주제 또는 집단의 풍부한 이야기를 청취할 수 있는 연구 방법으로써 청년 성소수자의 특수한 욕구를 파악하고,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에서도 더 비가시화된 집단의 경험을 드러내기에 유용하다. 다만 불특정 다수와 공개된 자리에서 공유하기 민감한 경험을 지닌 이들의 경우 FGI가 아닌 개별 심층면접으로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면접조사는 반구조화 질문지를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문항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가 반구조화 질문지의 초안을 작성한 후, 전체 연구진이 세 차례의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면접조사에 활용할 반구조화 질문지를 확정하였다.

반구조화 질문지의 문항은 성소수자 정체성, 성소수자 커뮤니티, 정치적 욕구, 주거 및 독립, 구직 및 직장 경험, 차별 경험, 코로나19 등을 공통 질문으로 삼았으며, 집단별로 특수성을 반영한 추가 질문을 마련하였다. 면접조사는 반구조화 질문지를 바탕으로 하되, 면

접 참여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주제의 제한을 크게 두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면접조사의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다.

표 3 면접조사 조사 내용

항목	주요내용
성소수자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체화 방식 및 정체화 과정에서의 어려움 커밍아웃 시기 및 대상 커밍아웃 이후의 반응과 커밍아웃의 의미 성소수자 정체성이 자신에게 중요한 정도
성소수자 커뮤니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소수자 커뮤니티 참여 경험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소속감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장벽
정치적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태도 평가 성소수자 인권 활동에 대한 욕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적 변화
주거 및 독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 형태 및 독립 여부 성소수자로서 독립이 갖는 의미 성소수자로서 서울에 사는 의미
구직 및 직장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직 경험 및 구직 과정에서의 차별 성소수자인 점이 직업 선택에 미친 영향 직장 내 차별 경험
차별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소수자로서 차별받은 경험 차별에 대처한 방식
코로나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가 성소수자로서 자신에게 미친 영향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건에 대한 인식
바라는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사회 및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바라는 점
추가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체성 집단별 특화 질문

면접조사는 설문조사에 응답을 완료한 참여자 가운데 추가적인 조사에 응하기를 희망한 이들 가운데 선정하였다. 따라서 조사 대상은 설문조사와 동일하게 한국에서 최근 10년간 거주하였으며 만19세에서 만34세에 해당하는 성소수자이다.

특히 성소수자 내에서도 비교적 소수자의 위치에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에이섹슈얼, 바이섹슈얼, 비수도권 거주자, 직장인, 군 전역자, 대학생,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젠더퀴어, 고졸, HIV 감염인 및 약물사용자 등을 면접조사 대상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각 집단별로 후보자를 설문조사 참여자 가운데 3배수로 선정하

여 SMS를 통해 면접조사 참여 희망 여부를 확인하였다.

면접조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및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해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을 통해 진행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1년 9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50일에 걸쳐 파일럿 조사 2회, FGI 12회, 심층면접 3회를 실시하였으며, 파일럿 조사를 포함하여 총 50명이 면접조사에 참여하였다.

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 2인이 주 면접자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보조연구원 및 면접조사 보조 4인이 보조면접자로 참여하였다. 면접조사를 진행하기 이전에 질적 연구의 목적과 전제, 방법에 대해 연구진 내부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면접 시작시 면접조사 참여자의 권리, 개인정보 동의, 조사 목적과 결과 활용에 대한 내용을 참여자에게 설명한 뒤, 줌 녹화기능을 활성화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조사의 참여자에게는 사례비로 50,000원을 지급하였다.

면접조사는 모두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녹화 기능을 활성화하여 기록하였다. 이후 녹화 파일을 바탕으로 녹취록을 작성하였고, 녹취록을 면접조사의 분석 자료로 삼았다. 책임연구자와 공동연구자 2인이 교차로 녹취록을 검토하였으며, 반구조화 질문지에 따른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이를 설문조사 분석 결과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설문조사를 통해 포집된 청년 성소수자의 사회적 욕구와 경험을 실제 언어를 통해 보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 자문회의는 다음 두 가지 목적을 위해 두 시기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첫째, 설문조사 수행 이전에 문항지의 효과적인 설계를 위해 자문을 실시하였다. 둘째, 설문조사 수행 이후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결과의 풍부한 분석과 제언을 위해 자문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자문으로는 유관 전공 연구자와 성소수자 인권활동가 총 6인이 참여하였다.

3. 연구 결과

1) 참여자의 특성과 분포

(1) 설문조사

설문조사 응답자의 성소수자 정체성과 집단별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을 차례로 실시하였다. “다음 중 귀하의 성적지향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귀하의 성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해당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출생 시 성별 / 현재 법적 성별 / 현재 내가 생각하는 성별”

그 결과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3,911명의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분포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성적지향 분포는 레즈비언 716명(18.3%), 게이 1,268명(32.4%), 바이섹슈얼 876명(22.4%), 범성애자/판섹슈얼 423명(10.8%), 무성애자/에이섹슈얼 285명(7.3%), 퀴어 214명(5.5%), 이성애자 24명(0.6%), 기타(직접입력) 107명(2.7%)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정체성 분포는 시스젠더 여성 1,704명(43.6%), 시스젠더 남성 1,469명(37.5%), 트랜스젠더 남성(FTM) 62명(1.6%), 트랜스젠더 여성(MTF) 109명(2.8%), 논바이너리/젠더퀴어 569명(14.5%)으로 나타났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교차하여 확인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성소수자 정체성 분포는 다음과 같다. 시스젠더 여성 중에서는 레즈비언이 641명(37.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바이섹슈얼 606명(35.6%), 범성애자/판섹슈얼 226명(13.3%), 무성애자/에이섹슈얼 124명(7.3%)이 뒤를 이었다. 시스젠더 남성 중에서는 게이 1,207명(82.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바이섹슈얼 171명(11.7%)이 뒤를 이었다. 트랜스젠더의 경우 성적지향의 분포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논바이너리/젠더퀴어의 경우에는 범성애자/판섹슈얼 137명(24.1%), 무성애자/에이섹슈얼 127명(22.3%), 퀴어 101명(17.8%)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설문조사 응답자의 정체성별 분포*

단위: N(%)	전체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범성애자/판섹슈얼	무성애자/에이섹슈얼	퀴어	이성애자	기타(직접입력)
전체	3,911(100)	716(18.3)	1,267(32.4)	875(22.4)	423(10.8)	285(7.3)	214(5.5)	24(0.6)	107(2.7)
시스젠더 여성	1,704(43.6)	641(37.6)	-	606(35.6)	226(13.3)	124(7.3)	71(4.2)	-	36(2.1)
시스젠더 남성	1,467(37.5)	-	1,207(82.3)	171(11.7)	29(2.0)	16(1.1)	26(1.8)	1(0.1)**	17(1.2)
FTM	62(1.6)	13(21.0)	7(11.3)	6(9.7)	7(11.3)	12(19.4)	7(11.3)	7(11.3)	3(4.8)
MTF	109(2.8)	15(13.8)	14(12.8)	21(19.3)	24(22.0)	6(5.5)	9(8.3)	14(12.8)	6(5.5)
논바이너리/젠더퀴어	569(14.5)	47(8.3)	39(6.9)	71(12.5)	137(24.1)	127(22.3)	101(17.8)	2(0.4)	45(7.9)

*단, 본 조사의 결과 분석에서 정체성별 교차분석 표를 제시할 때에는 바이섹슈얼과 범성애자/판섹슈얼 응답자를 합쳐 '바이섹슈얼'로, 퀴어와 기타(직접입력)를 합쳐 '퀴어'로 제시하였으며, 바이섹슈얼과 범성애자/판섹슈얼 응답자의 경향에 차이가 큰 경우에만 나누어 제시하

였다.

**시스젠더 남성-이성애자로 체크한 응답자 1인은 인터섹스 당사자로 본 조사에 포함됨.

설문조사 응답자의 성별정체성을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본 분포는 다음과 같다. 시스젠더 여성은 19~24세가 1,035명(60.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25~29세는 463명(27.2%), 30~34세는 206명(12.1%)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시스젠더 남성은 19~24세 500명(34.1%), 25~29세 576명(39.3%), 30~34세 391명(26.7%)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트랜스젠더 남성(FTM)은 19~24세가 28명(45.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25~29세가 21명(33.9%), 30~34세가 13명(21.0%)을 차지했다. 트랜스젠더 여성(MTF)은 19~24세가 54명(49.5%), 25~29세가 31명(28.4%), 30~34세가 24명(22.0%)의 분포를 보였다. 논바이너리/젠더퀴어는 19~24세가 292명(51.3%)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25세~29세가 179명(31.5%), 30~34세가 98명(17.2%)의 분포를 나타냈다. 시스젠더 남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성별정체성에서 19~24세의 설문조사 참여가 두드러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설문조사 참여자의 연령대별 정체성 분포

전체(N)=3,911 평균(표준편차)=25.1(4.3)	19-24세		25-29세		30-34세	
	N	%	N	%	N	%
레즈비언(n=716)	386	53.9	204	28.5	126	17.6
게이(n=1,267)	406	32.0	500	39.5	361	28.5
바이섹슈얼(n=1,298)	773	59.6	364	28.0	161	12.4
에이섹슈얼(n=285)	165	57.9	82	28.8	38	13.3
퀴어(n=321)	167	52.0	110	34.3	44	13.7
시스젠더 여성(n=1,704)	1,035	60.7	463	27.2	206	12.1
시스젠더 남성(n=1,467)	500	34.1	576	39.3	391	26.7
FTM(n=62)	28	45.2	21	33.9	13	21.0
MTF(n=109)	54	49.5	31	28.4	24	22.0
논바이너리/젠더퀴어(n=569)	292	51.3	179	31.5	98	17.2

설문조사 응답자 3,911명의 인구사회학적 정보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25.1세로, 19~24세가 1,909명(48.8%), 25~29세가 1,270명(32.5%), 30~34세가 732명(18.7%)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이하 718명(18.4%), 대학교 재학 1,457명(37.3%), 대학교 졸업 1,329명(34.0%), 대학원 이상 407명(10.4%)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3,884명(99.3%)이 현재 미혼 또는 비혼 상태였다. 24명(0.6%)는 현재 기혼

상태이며, 3명(0.1%)는 이혼/사별/별거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종교는 전체 응답자의 74.3%(2,905명)가 무교였으며, 믿고 있는 신앙이 있는 응답자는 개신교 380명(9.7%), 천주교 291명(7.4%), 불교 290명(7.4%), 기타 45명(1.2%)로 나타났다.

취업상태별로 살펴보면, 1,694명(43.31%)은 현재 학생이었으며, 1,621명(41.45%)는 고용되었거나 자영업 등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무직, 전업 가사노동 혹은 구직 중인 응답자는 596명(15.24%)였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학생이 1,688명(43.2%), 사무/기술직이 634명(16.2%), 취업준비생이 429명(11.0%), 무직이 210명(5.4%), 자유직이 173명(4.4%), 교육직이 156명(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계층은 상층 99명(2.5%), 중상층 735명(18.8%), 중중층 1,437명(36.7%), 중하층 1,284명(32.8%), 하층 356명(9.1%)의 분포를 보였다.

장애 여부는 등록 장애 35명(0.9%), 비등록 장애 291명(7.4%),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음 3,585명(91.7%)의 분포를 보였다.

표 6 설문조사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정보

전체(N)=3,911		N	%
연령대	19-24세	1,909	48.8
	25-29세	1,270	32.5
	30-34세	732	18.7
최종학력	고졸	718	18.4
	대학교 재학	1,457	37.3
	대학교 졸업	1,329	34
	대학원 이상	407	10.4
혼인상태	미혼/비혼	3,884	99.3
	기혼	24	0.6
	이혼/사별/별거	3	0.1
종교	불교	290	7.4
	가톨릭(천주교)	291	7.4
	개신교	380	9.7
	무교	2,905	74.3
취업상태	취업자	1,621	41.5
	학생	1,694	43.3
	무직, 주부, 구직 중	596	15.2
직업	학생	1,688	43.2
	취업준비생	429	11.0

	경영/관리직	23	0.6
	전문직	100	2.6
	사무/기술직	634	16.2
	서비스종사자	110	2.8
	판매/서비스직	93	2.4
	교육직	156	4.0
	자영업	62	1.6
	기능/숙련공	18	0.5
	자유직	173	4.4
	유흥업소 종사자	12	0.3
	단순노무 종사자	43	1.1
	취로 및 공공사업	13	0.3
	군인	57	1.5
	농업, 임업, 어업	2	0.1
	가정주부	4	0.1
	무직	210	5.4
주관적 계층	상층	99	2.5
	중상층	735	18.8
	중중층	1,437	36.7
	중하층	1,284	32.8
	하층	356	9.1
장애 여부	등록 장애	35	0.9
	비등록 장애	291	7.4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음	3,585	91.7

(2) 면접조사

파일럿 조사를 제외한 FGI와 심층면접에 참여한 면접조사 참여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의 신상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정보만을 표시하였다.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은 연구진이 별도로 수정하지 않고 참여자가 스스로 작성하거나 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였다.

표 7 면접조사 참여자의 특성

인용명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나이	거주지역	학력	현재상태 (직업)
참여자 1	에이젠더	에이엠브렐라	25	경기도	대졸	학생
참여자 2	논바이너리 뉴트로이스	에이섹슈얼	34	서울특별시	석사	사무직
참여자 3	트랜스젠더 남성	에이섹슈얼	29	울산광역시	박사 재학	학생
참여자 4	시스젠더 여성	바이섹슈얼	26	서울특별시	대졸	사무직
참여자 5	퀘스처너리	바이섹슈얼	34	경기도	대졸	교육직
참여자 6	시스젠더 여성	바이섹슈얼	22	서울특별시	대재	학생

참여자 7	퀘스처너리	바이섹슈얼	27	경기도	대졸	사무직
참여자 8	젠더퀴어	바이섹슈얼	24	서울특별시	대재	학생
참여자 9	트랜스 논바이너리	팬로맨틱 게이	30	대전광역시	대졸	사무직
참여자 10	여성	레즈비언	28	대전광역시	대졸	취준생
참여자 11	시스젠더 남성	게이	28	대전광역시	대졸	사무직
참여자 12	시스젠더 남성	게이	28	대전광역시	석사	사무직
참여자 13	논바이너리	게이	24	대전광역시	대재	학생
참여자 14	시스젠더 남성	게이	30	서울특별시	대졸	사무직
참여자 15	시스젠더 남성	게이	31	부산광역시	대졸	서비스업
참여자 16	시스젠더 남성	게이	29	경기도	대졸	사무직
참여자 17	시스젠더 남성	게이	33	서울특별시	대졸	교육직
참여자 18	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35	경상남도	석사	전문직
참여자 19	시스젠더 여성	바이섹슈얼	30	서울특별시	대졸	기타
참여자 20	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33	서울특별시	대재	기타
참여자 21	시스젠더 남성	게이	25	강원도	대재	학생
참여자 22	시스젠더 남성	게이	31	서울특별시	박사 재학	학생
참여자 23	시스젠더 남성	게이	24	부산광역시	고졸	예술직
참여자 24	시스젠더 남성	게이	25	경기도	대재	학생
참여자 25	논바이너리	퀴어	26	경기도	대재	학생
참여자 26	시스젠더 남성	바이섹슈얼	21	부산광역시	대재	학생
참여자 27	시스젠더 남성	게이	26	부산광역시	대졸	취준생
참여자 28	시스젠더 남성	게이	28	서울특별시	대졸	예술직
참여자 29	트랜스젠더 남성	팬섹슈얼 데미로맨틱	26	경기도	대재	학생
참여자 30	트랜스젠더 남성		30	전라북도	대졸	사무직
참여자 31	트랜스젠더 남성	무성애자	29	충청남도	대졸	취준생
참여자 32	트랜스젠더 여성	바이섹슈얼	32	서울특별시	석사	전문직
참여자 33	트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23	대전광역시	대재	교육직
참여자 34	트랜스젠더 여성	바이섹슈얼	27	서울특별시	대재	학생
참여자 35	트랜스젠더 여성	에이섹슈얼	23	서울특별시	대재	기술직
참여자 36	여성	레즈비언	28	대전광역시	대재	학생
참여자 37	남성	게이	32	경기도	고졸	서비스직
참여자 38	데이보이플루이드	안드로섹슈얼	27	서울특별시	고졸	공공사업
참여자 39	시스젠더 여성	오토코리섹슈얼	27	부산광역시	고졸	서비스직
참여자 40	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27	경기도	고졸	기타
참여자 41	남성	팬섹슈얼	24	서울특별시	고졸	공공사업
참여자 42	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28	경기도	고졸	사무직

참여자 43	시스젠더 남성	게이	32	부산광역시	석사	교육직
참여자 44	시스젠더 남성	게이	29	경기도	석사	기술직
참여자 45	시스젠더 남성	게이	35	서울특별시	고졸	서비스직

2) 정체성과 커뮤니티

응답자가 자신의 성소수자 정체성을 언제 처음으로 인지하고 수용하였는지 나누어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의 두 질문을 제시하였다. “귀하가 귀하의 성소수자로서의 성향을 최초로 인지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귀하가 귀하의 성소수자 정체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지게 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성소수자로서의 성향을 최초로 인지한 시기의 평균은 14.7세(SD=4.1)이었다. 성적지향별로 나누어 보면, 정체성 인지 시기의 평균 나이는 레즈비언 14.6세, 게이 13.4세, 바이섹슈얼 15.6세, 에이섹슈얼 16.0세, 퀴어 14.7세에 자신의 성향을 인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성별정체성별로 나누어 보면, 시스젠더 여성 14.7세, 시스젠더 남성 15.7세, 트랜스젠더 남성(FTM) 13.8세, 트랜스젠더 여성(MTF) 13.0세, 논바이너리/젠더퀴어 14.3세에 자신의 성향을 인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정체성 인지 시기는 성적지향별로 보면 게이 가장 빠르고 무성애자가 가장 느린 경향을 보인다. 또, 성별정체성으로 나누어 보면 시스젠더에 비해 바이너리한 트랜스젠더가 정체성 인지 시기가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가 성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지게 된 시기의 평균은 17.8세(SD = 4.3)로 나타났다. 성적지향별로 평균 정체성 수용 시기는 레즈비언 17.3세, 게이 17.3세, 바이섹슈얼 18.3세, 에이섹슈얼 19.3세, 퀴어 17.8세에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성별정체성의 경우 시스젠더 여성 18세, 시스젠더 남성 17.4세, 트랜스젠더 남성(FTM) 17.6세, 트랜스젠더 여성(MTF) 19.4세, 논바이너리/젠더퀴어 18세에 자신의 정체성을 수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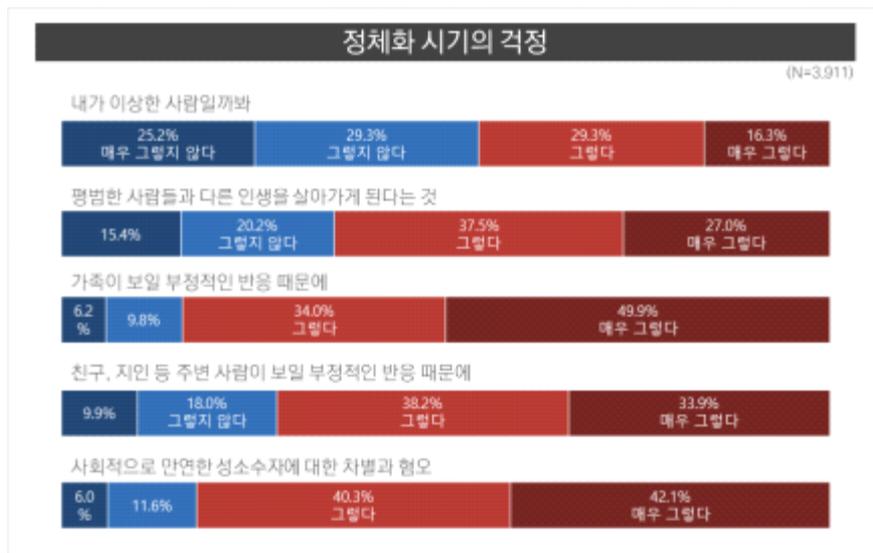
표 8 성소수자 정체성 인지 및 수용 시기

전체(n)=3,911		
	정체성 인지 시기	정체성 수용 시기
최소값	1	1
최대값	34	34
평균	14.7	17.8
표준편차	4.1	4.3
제1사분위수	12	15
제3사분위수	17	20

평균(표준편차)		
레즈비언(n=716)	14.6(3.9)	17.3(4.1)
게이(n=1,267)	13.4(3.6)	17.2(4.4)
바이섹슈얼(n=1,298)	15.6(4.1)	18.3(4.1)
에이섹슈얼(n=285)	16.0(4.8)	19.3(4.7)
퀴어(n=321)	14.7(4.2)	17.8(4.3)
시스젠더 여성(n=1,704)	15.7(4.0)	18.0(4.0)
시스젠더 남성(n=1,467)	13.7(3.7)	17.4(4.4)
FTM(n=62)	13.8(5.0)	17.6(3.6)
MTF(n=109)	13.0(5.0)	19.4(4.3)
논바이너리/젠더퀴어(n=569)	14.3(4.4)	18.0(4.6)

다음으로는 성소수자로 정체화하는 과정에서 응답자들이 걱정을 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정체화 시기의 가장 걱정의 내용으로는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이 내가 성소수자라는 것을 알면 보일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라는 문항에 대한 동의 비율이 83.9%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적으로 만연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때문에”가 82.4%로 그 뒤를 이었다. “친구, 지인 등 주변 사람이 내가 성소수자라는 것을 알면 보일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도 72.1%로 동의 비율이 높았다.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때문에”에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64.5%, “내가 이상한 사람일까봐”에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45.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소수자로 정체화 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나 고민을 하는 응답자도 적지 않으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가족과의 관계 및 사회적 관계로 인한 걱정을 훨씬 크게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 1 정체화 시기의 걱정



설문조사 참여자들이 처음으로 커밍아웃한 대상은 ‘비성소수자 친구, 동료’가 1,715명(43.9%), ‘성소수자 친구, 동료’ 1,315명(33.6%)으로 친구나 동료에게 가장 먼저 커밍아웃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커밍아웃을 한 적 없는 사람이 460명(11.8%)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어머니’ 130명(3.3%), ‘부모님을 제외한 직계가족 구성원’ 101명(2.6%), ‘기타’ 67명(1.7%), ‘심리상담 전문가’ 53명(1.4%), ‘의료진 등 건강 관련 전문가’ 20명(0.5%), ‘아버지’ 16명(0.4%), ‘그 외 친척들’ 14명(0.4%), ‘교사’ 13명(0.3%), ‘종교인’ 8명(0.2%)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가족보다는 친구나 동료에게 먼저 커밍아웃을 하는 경향이 존재했다.

표 9 최초 커밍아웃 상대

전체(n)=3,911	%
비성소수자 친구, 동료	43.9
성소수자 친구, 동료	33.6
어머니	3.3
부모님을 제외한 직계 가족 구성원	2.6
심리상담 전문가	1.4
의료진 등 건강 관련 전문가	0.5
아버지	0.4
그 외 친척들	0.4
교사	0.3
종교인	0.2
기타	1.7
해당사항 없음(커밍아웃 한 적 없음)	11.8

상대방에 따른 커밍아웃 여부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30.7%는 어머니에게, 16.2%는 아버지에게 커밍아웃을 한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 커밍아웃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8%는 적어도 한 명 이상의 비성소수자 친구에게 커밍아웃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장 동료나 상사의 경우 자신의 성소수자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은 경우가 각각 64.8%와 71.3%로 나타나, 직장에서의 커밍아웃은 비교적 어려운 일로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의 26.4%는 심리상담 전문가에게, 17.9%는 의료진 등 건강 전문가에게 커밍아웃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대상별 커밍아웃 여부

	전체(n)=3,451	커밍아웃 함*	커밍아웃 하지 않음	해당 없음
		%	%	%
어머니		30.7	63.6	5.7
아버지		16.2	74.8	9
형제자매		37.1	52.0	10.8
비성소수자 친구		78.0	20.2	1.8
직장 동료		15.2	64.8	19.9
직장 상사		7.3	71.3	21.5
심리상담 전문가		26.4	48.0	25.7
의료진 등 건강 전문가		17.9	58.6	23.6

* '일부 알고 있음', '대부분 알고 있음', '모두 알고 있음'을 합한 값임

"현재 가족들은 귀하의 성소수자 정체성을 얼마나 지지해 줍니까?" 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족 중 내가 성소수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1,955명을 제외한 1,956명 응답자 가운데 가족이 자신의 성소수자 정체성을 지지해준다고 응답한 사람은 602명(30.8%)였다. 773명(39.5%)은 가족이 자신의 성소수자 정체성을 지지하지도, 반대하거나 무시하지도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581명(29.7%)는 가족이 자신의 성소수자 정체성을 반대하거나 무시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11 가족의 지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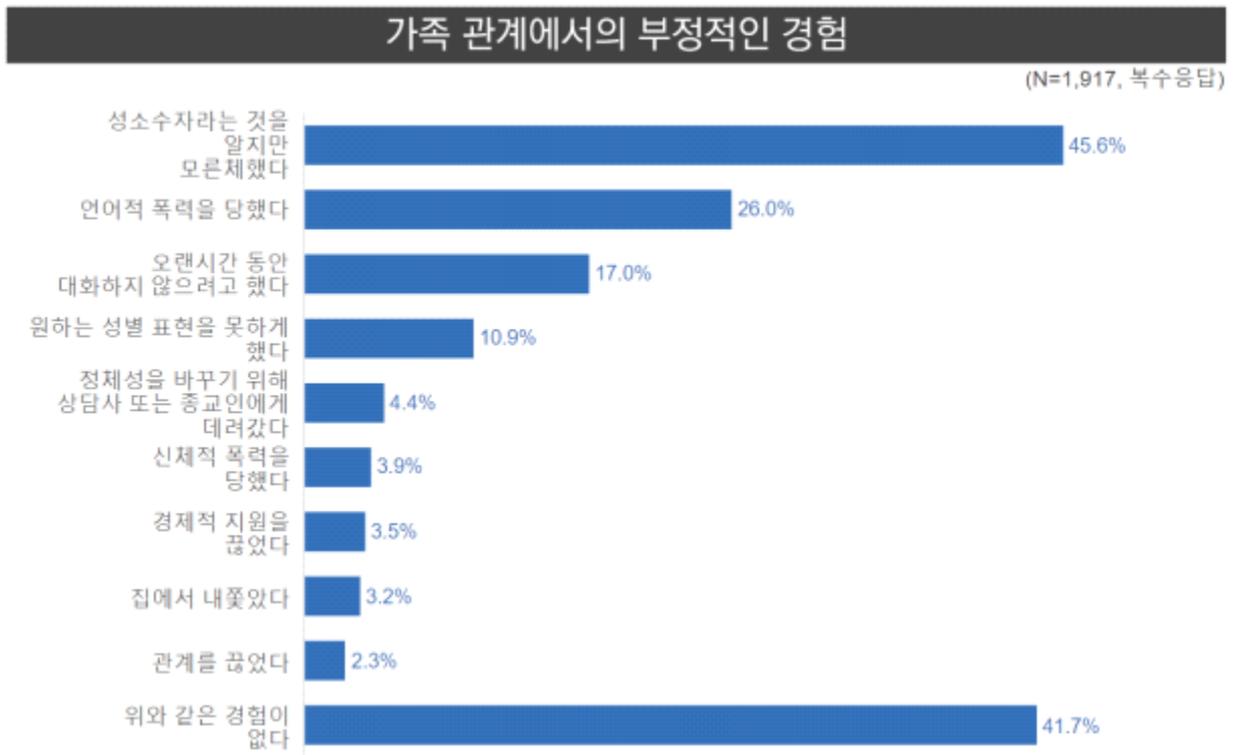
전체(n)=1,956	%
반대하거나 무시한다	29.7
지지하지도, 반대하거나 무시하지도 않는다	39.5
지지해준다	30.8

* '반대하거나 무시한다'는 '철저히 반대하거나 무시한다'와 '반대하거나 무시하는 편이다'를 합한 값이고, '지지해준다'는 '지지해주는 편이다'와 '전적으로 지지해준다'를 합한 값임

가족으로부터의 경험한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서는, '가족 중 내가 성소수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1,892명과 해당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174명을 제외한 1,917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가장 빈번한 가족으로부터의 차별 경험으로는 '성소수자라는 것을 알지만 모른 체 했다'가 875명(45.6%)으로 나타났다. 그밖에도 '언어적 폭력을 당했다'가 498명(26.0%), '오랜 시간동안 대화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326명(17.0%), '웃이나 화장 등 원하는 성별 표현을 못 하게 했다'가 209명(10.9%)로 나타났으며,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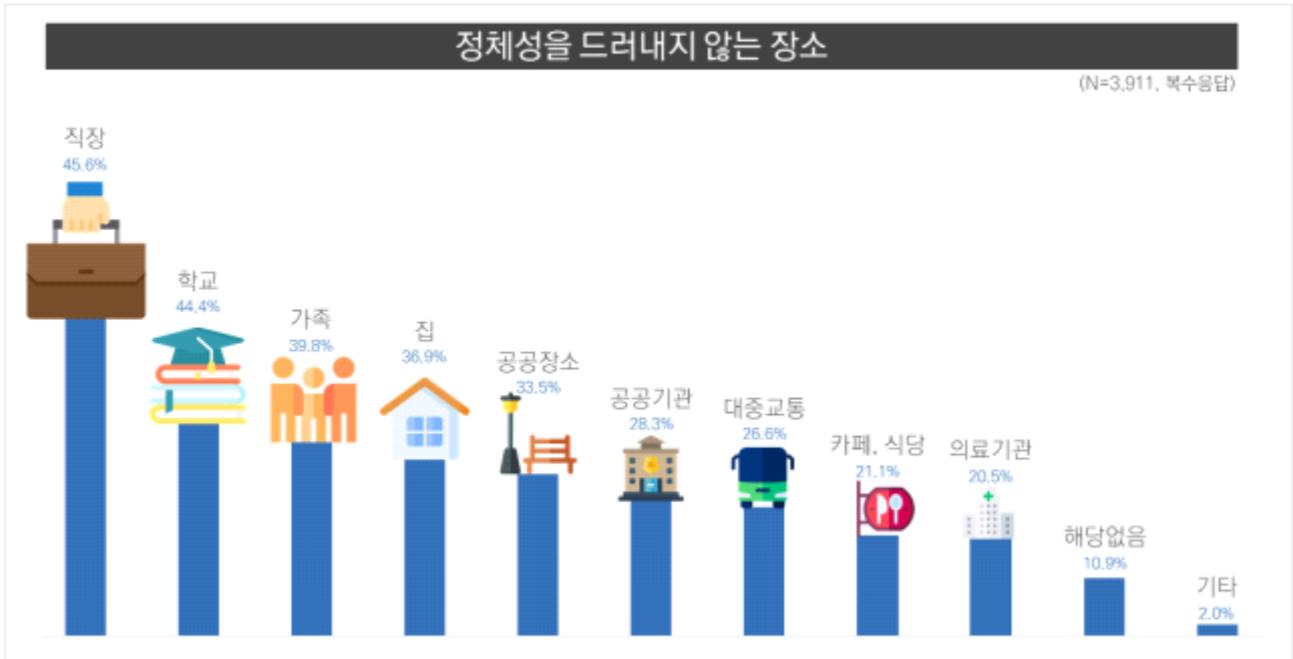
상담사 또는 종교인에게 데려갔다’(84명, 4.4%),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75명, 3.2%) 등 심각한 차별 및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응답자도 적지 않았다. 가족에게 성소수자라는 것을 밝힌 응답자 가운데 41.7%는 위와 같은 차별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그림 2 가족 관계에서의 부정적인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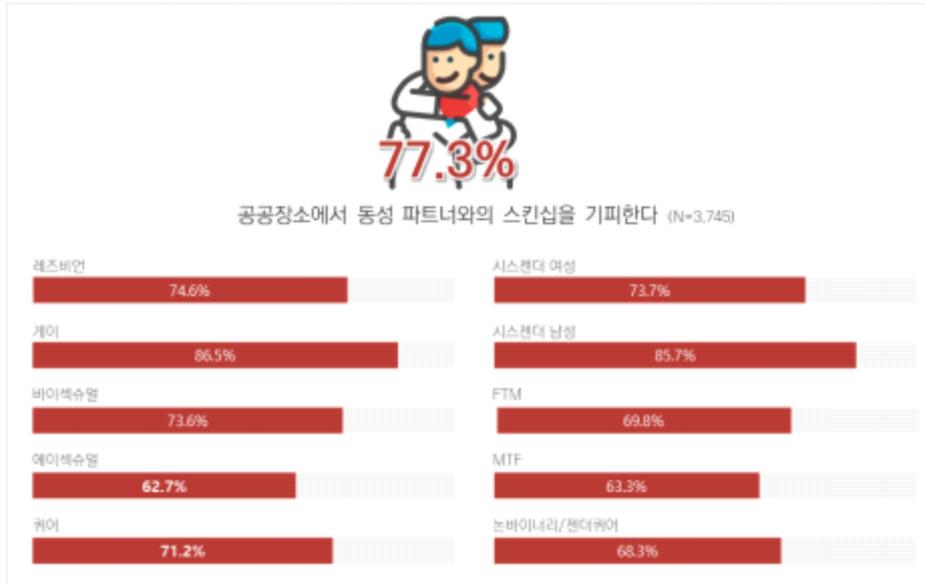
“귀하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폭력이나 위협, 괴롭힘을 당할까봐 걱정 되어서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곳은 어디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가장 정체성을 드러내기 꺼려하는 곳으로 꼽은 장소는 직장(66.3%)이었다. 다음으로는 학교(44.4%), 가족과 함께 있을 때(39.8%), 집(36.9%), 길거리,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33.5%)의 순으로 이어졌다. ‘해당 없음’에 답한 사람은 425명(10.9%)로, 정체성을 설문조사 응답자 열 명 가운데 한 명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편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장소



“귀하는 폭력이나 위협,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공공장소에서 동성 파트너와 스킨십(손잡기, 키스, 포옹)을 꺼려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해당 없음(동성에 끌리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166명을 제외한 3,745명의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77.3%는 폭력이나 위협,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공공장소에서 동성 파트너와 스킨십(손잡기, 키스, 포옹)을 꺼려한다고 응답하였다. 성적지향별로 살펴보면, 응답자 가운데 게이의 86.5%가 공공장소에서 스킨십을 꺼려한다고 응답해 다른 성적지향에 비해 공공장소에서 동성 파트너와 스킨십을 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정체성별로 나누어 보면 시스젠더 남성이 공공장소에서 동성과의 스킨십을 꺼려하는 경향이 가장 강했다.

그림 4 공공장소에서 동성과의 스킨십 기피 여부



3) 차별과 혐오

전체 응답자 가운데 1,313명(33.6%)이 최근 1년간 동안 각종 상황에서 성소수자로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성적지향별로 나누어 보면 에이섹슈얼(42.1%), 퀴어(48.6%)에서 최근 1년간 차별 경험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고, 성별정체성별로 나누어 보면 트랜스젠더 남성(FTM)의 71%, 트랜스젠더 여성(MTF)의 68.8%가 최근 1년간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여 다른 성별정체성보다 높은 차별 경험을 보고하였다.

그림 5 최근 1년간 차별 경험



차별을 경험한 공간 또는 상황별로 나누어보면, ‘대학(원)에서’(12.7%), ‘직장에서’(12.1%), ‘화장실, 탈의실, 사우나 등에서’(11.9%), ‘관공서 등 공공기관에서’(9.7%), ‘카페, 식당, 바, 클럽 등에서’(9.4%), ‘의료기관 및 복지센터 등에서’(9%), ‘일자리를 구할 때’(8.87%), ‘상담기관에서’(7.8%), ‘상점에서’(6.6%), ‘자취방, 주택 등 거주지를 구할 때’(4.6%) 등의 순으로 특정 공간 또는 상황에서 성소수자로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최근 1년간 차별 경험의 상황

전체(n)=3,911 (중복응답) 단위(%)	경험함	경험하지 않음	해당 없음
대학(원)에서	12.7	47.3	40.0
직장에서	12.1	40.2	47.7
화장실, 탈의실, 사우나 등에서	11.9	52.7	35.4
관공서 등 공공기관에서	9.7	51.7	38.6
카페, 식당, 바, 클럽 등에서	9.4	53.8	36.8
의료기관 및 복지센터 등에서	9.0	53.5	37.5
일자리를 구할 때	8.9	43.8	47.4
상담기관에서	7.8	51.4	40.8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7.2	54.0	38.9
상점에서	6.6	56.9	36.5
자취방, 주택 등 거주지를 구할 때	4.6	46.3	49.1

최근 12개월 동안 차별 경험이 있는 응답자 1,313명에게 최근 1년간 경험한 여러 차별 경험 가운데 가장 심각했던 차별 경험을 골라달라고 질문하였다. 그에 대한 응답의 분포는 ‘대학(원)에서’(19.7%), ‘직장에서’(17.4%), ‘화장실, 탈의실, 사우나 등에서’(1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취업상태에 따른 가장 심각한 차별 경험의 분포를 살펴보면, 취업자들은 ‘직장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자가 26.8%, 학생은 ‘대학(원)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자가 32.4%, 무직, 주부, 구직 중인 자는 ‘일자리를 구할 때’가 20.0%, 직장에서가 16.3%로 나타나 취업상태와 차별 경험이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논바이너리/젠더퀴어는 ‘화장실, 탈의실, 사우나에서’가 각각 34.1%, 32.0%, 21.3%를 차지했고,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각각 20.5%, 16.0%, 10.7%를 차지해 차별 경험의 양상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표 13 최근 1년간 가장 심각했던 차별 경험

단위(%)	전체 (n=1,313)	취업자 (n=564)	학생 (n=534)	무직, 주부, 구직 중 (n=215)
대학(원)에서	19.7	9.9	32.4	14.0
직장에서	17.4	26.8	8.1	16.3
화장실, 탈의실, 사우나 등에서	13.6	13.5	13.9	13.5
일자리를 구할 때	9.6	8.9	6.2	20.0
상담기관에서	8.2	6.7	9.7	8.4
카페, 식당, 바, 클럽	7.9	7.6	9.0	6.0
의료기관 및 복지센터	6.2	7.4	5.4	5.1
관공서 등 공공기관에	6.0	7.8	4.7	4.7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4.6	4.1	4.7	6.0
자취방, 주택 등 거주지를 구할 때	4.0	5.1	3.4	2.3
상점에서	2.6	2.1	2.6	3.7

최근 1년간 가장 심각한 차별 경험의 발생 장소를 정체성 별로 나누어 보면, 레즈비언(22.4%)과 바이섹슈얼(20.3%), 에이섹슈얼(15.0%)은 ‘대학(원)에서’, 게이(24.3%)와 에이섹슈얼(15.0%)은 ‘직장에서’, 퀴어(24.4%), 트랜스젠더 남성(FTM)(34.1%), 트랜스젠더 여성(MTF)(32.0%), 논바이너리/젠더퀴어(21.3%)는 ‘화장실, 탈의실, 사우나 등에서’가 가장 높은 응답 분포를 보였다. 또,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젠더퀴어는 ‘일자리를 구할 때’와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차별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정체성별 최근 1년간 가장 심각한 차별 경험

	레즈비언 (n=263)	게이 (n=321)	바이섹슈얼 (n=434)	에이섹슈얼 (n=120)	퀴어 (n=156)	FTM (n=44)	MTF (n=75)	논바이너리/ 젠더퀴어 (n=319)
대학(원)에서	22.4	21.5	20.3	15.0	16.0	9.1	5.3	13.5
직장에서	12.9	24.3	18.4	15.0	11.5	6.8	6.7	15.7
화장실, 탈의실, 사우나 등에서	16.3	7.5	13.6	8.3	24.4	34.1	32.0	21.3
일자리를 구할 때	7.2	7.2	8.5	14.2	16.7	15.9	22.7	12.9
상담기관에서	5.7	6.9	11.1	13.3	4.5	0.0	0.0	6.6
카페, 식당, 바, 클럽 등에서	8.4	10.6	7.1	6.7	5.1	4.5	5.3	6.0
의료기관 및 복지센터 등에서	6.5	8.1	4.8	7.5	5.1	2.3	6.7	4.7
관공서 등 공공기관에서	8.4	6.9	4.8	5.8	4.5	4.5	1.3	3.1
주민등록증 등	2.3	0.3	6.5	10.8	5.1	20.5	16.0	10.7

신분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								
자취방, 주택 등 거주지를 구할 때	7.2	4.0	1.6	1.7	5.8	2.3	2.7	3.1
상점에서	2.7	2.8	3.2	1.7	1.3	0.0	1.3	2.5

최근 12개월 동안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가장 심각한 사건을 경험하였을 때,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가 1,125명(85.7%)으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는 39명(3%), 누군가가 대신 신고한 경우는 13명(1%)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15 차별 경험에 대한 신고 여부

전체(n)=1,313	응답자 수	%
본인이 직접 신고함	39	3.0
타인이 대신 신고함	13	1.0
신고하지 않음	1,125	85.7
모르겠음	136	10.4

차별 경험에 대해 직접 또는 누군가가 대신 신고한 응답자 52명이 차별을 신고한 기관으로는 ‘경찰’(30.8%), ‘학교 내 관련 조직(인권센터, 학생회 등)’(23.1%), ‘성소수자 단체’(1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6 차별 경험에 대한 신고 기관

전체(n)=52 (중복응답)	응답 수	%
경찰	16	30.8
학교 내 관련 조직(인권센터, 학생회 등)	12	23.1
성소수자 단체	8	15.4
고용주	6	11.5
사건이 벌어진 장소	6	11.5
기타	6	11.5
국가인권위원회	5	9.6
변호사 등 법률 서비스	5	9.6
노동조합	3	5.8
비정부기구 및 시민단체	3	5.8
모르겠음	2	3.8
지방자치단체	1	1.9

반면 차별을 경험했으나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 1,125명이 응답한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할 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서’(53.0%), ‘신고할 가치가 없다고 느껴져서(항상 일어나는 일이니까)’(53.0%), ‘내가 성소수자임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38.6%), ‘사람들이 이 사건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을 것 같아서’(2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7 신고하지 않은 이유

전체(n)=1,115 (중복응답)	응답 수	%
신고를 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서	596	53.0
신고할 가치가 없다고 느껴져서(항상 일어나는 일이니까)	596	53.0
내가 성소수자임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434	38.6
사람들이 사건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을 것 같아서	322	28.6
사건을 적극적으로 다루는 것이 심적으로 어려워서	211	18.8
당국 등을 믿을 수 없어서	186	16.5
어떻게 혹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몰라서	153	13.6
가해자의 위협이 두려워서	69	6.1
본인 스스로 혹은 가까운 가족 또는 친구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45	4.0
기타	47	4.2

다음으로는 ‘현역병으로 군복무 중이거나 군복무 마침’ 및 ‘직업군인으로 군복무 중이거나 군복무 마침’에 해당하는 964명에게 군복무 생활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자들은 자신의 군복무 경험에 대해 ‘강압 및 규율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했다.’(30.4%), ‘나를 숨겨야 하는 것이 고통스러웠다.’(29.4%), ‘마초적이고 성차별적인 군대 문화 때문에 힘들었다.’(26.2%), ‘부대 내에서 다른 군인과 성적인 경험을 했다.’(19.6%), ‘나의 성소수자 정체성을 확신하거나 인정하게 되었다.’(14.4%) 등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에게 인식되는 성별에 따라서는 대체로 여성으로 인식되거나, 종종 여성으로 인식되거나, 남성으로 인식될 때도 있고 여성으로 인식될 때도 있는 경우에 ‘강압 및 규율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했다.’(각각 57.1%, 40%, 22.2%)거나 ‘마초적이고 성차별적인 군대 문화 때문에 힘들었다.’(각각 57.1%, 44%, 33.3%)는 응답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아, 여성스러운 성별표현을 하는 성소수자가 비교적 군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군복무 경험

전체(n)=964 (중복응답)	%
무난하게 군생활을 마쳤다	70.3
강압 및 규율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했다	30.4

나를 숨겨야 하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29.4
마초적이고 성차별적인 군대 문화 때문에 힘들었다	26.2
부대 내에서 다른 군인과 성적인 경험을 했다	19.6
나의 성소수자 정체성을 확신하거나 인정하게 되었다	14.4
군대생활이 적성에 맞았다	12.4
부대 내에서 다른 군인과 연애 관계를 가졌다	6.5
기타	1.1

응답자들이 군복무 중 성소수자 정체성과 관련하여 경험한 어려움은 ‘성소수자 비하적인 발언과 이를 용인하는 문화’(56.7%), ‘성소수자 정체성이 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53.6%) 등이 있었으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261명(27.1%)이었다.

표 19 군복무의 어려움

전체(n)=964 (중복응답)	%
성소수자 비하적인 발언과 이를 용인하는 문화	57.0
성소수자 정체성이 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53.6
위와 같은 경험 없음	27.1
공동 샤워시설 이용하기	13.4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	9.0
공동 취침시설에서 생활하기	7.7
기타	0.8

한편 응답자들이 군복무 중 성소수자 정체성과 관련하여 경험한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는 ‘관심사병으로 분류됨’(7.7%), ‘성희롱 또는 성폭력’(5.2%) 등이 있었으며, 직접적으로 차별을 경험하지는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829명(86%)이었다. 그러나 군대 내 커밍아웃 여부에 따라 군복무 차별 경험을 나누어보면, 스스로 커밍아웃 했거나 타인에 의해 아웃팅을 당한 경우에는 ‘관심병사로 분류됨’이 각각 19.6%와 31.0%, ‘성희롱 또는 성폭력’이 8.9%와 17.9%로 나타나는 등 커밍아웃을 하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높은 차별 경험을 보고하였다.

표 20 군복무 중 경험한 부당한 대우

전체(N)=964 (중복응답)	관심사병으로 분류됨	성희롱 또는 성폭력	업무 수행 또는 배정 등에서 차별	비전캠프 등 부적응 기관으로 이송	원하지 않는 강제 검진 또는 입원을 요구	휴가가 찢림	강제 전역 요구	위와 같은 경험 없음	기타
전체 (n=964)	7.7	5.2	1.9	1.8	0.4	0.6	0.4	86.0	2.2
스스로 커밍아웃 함	19.6	8.9	3.9	5.0	2.2	1.7	0.6	72.1	3.9

(n=179)									
타인에 의해 밝혀짐 (n=84)	31.0	17.9	13.1	9.5	2.4	3.6	2.4	45.2	13.1
커밍아웃 하지 않음 (n=727)	3.2	3.4	0.4	0.6	0.0	0.1	0.1	92.6	1.0

4) 구직 및 직장 경험

최근 5년간 구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3,318명을 대상으로 구직에 성소수자 정체성이 영향을 미쳤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구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26.7%는 구직에 성소수자 정체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트랜스젠더 여성(MTF)(62.9%)과 트랜스젠더 남성(FTM)(60.7%) 응답자들은 시스젠더 응답자들에 비해 구직에 성소수자 정체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21 구직에 성소수자 정체성이 미치는 영향

단위(%)	영향을 미쳤다*
전체(n=3,318)	26.7
레즈비언(n=629)	24.5
게이(n=1,073)	26.7
바이섹슈얼(n=1,107)	23.8
에이섹슈얼(n=214)	29.9
퀴어(n=273)	38.1
시스젠더 여성(n=1,457)	18.9
시스젠더 남성(n=1,126)	27.5
FTM(n=56)	60.7
MTF(n=97)	62.9
논바이너리/젠더퀴어(n=482)	42.5

* '매우 영향을 미쳤다',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다',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의 응답 가운데 '매우 영향을 미쳤다'와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다'를 합한 값임.

구직 시 성소수자 정체성이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구체적으로 구직시 선호 사항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시스젠더 여성에서는 '여성이 많은 직장'(57.9%), 시스젠더 남성에서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직장'(36.1%)이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했다. 반면 트랜스젠더 남성(FTM)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니폼이 없는 직장'(41.5%)이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했고,

트랜스젠더 여성(MTF)에서는 ‘혼자 일할 수 있는 직장’(54.7%)이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했다. 그밖에도 ‘복장/두발 자율성이 보장되는 직장’, ‘고향 친구, 동창 등 아는 사람을 만날 일이 없는 직장’,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 직장’ 등은 시스젠더에 비해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젠더퀴어 응답자에게서 높은 응답을 차지하였다.

표 22 성소수자 정체성을 고려한 구직 시 고려사항

단위(%) (중복응답)	전체 (n=1,699)	시스젠더 여성 (n=710)	시스젠더 남성 (n=537)	FTM (n=41)	MTF (n=75)	논바이너리/ 젠더퀴어 (n=336)
여성이 많은 직장	38.9	57.9	17.9	14.6	20.0	39.6
다양성이 존중되는 직장	33.5	30.1	36.1	29.3	20.0	39.9
종교적 색채가 없는 직장	32.5	26.6	35.0	29.3	34.7	40.8
복장/두발 자율성이 보장되는 직장	31.4	31.3	22.2	36.6	48.0	42.3
혼자 일할 수 있는 직장	25.3	19.0	26.1	24.4	54.7	31.0
객관적 자격(공무원 시험과 같은 국가고시,자격증)을 중시하는 직업	22.9	21.1	27.9	19.5	16.0	20.5
성별에 따른 유니폼이 없는 직장	20.8	20.3	5.0	41.5	42.7	39.9
자신을 지지해주는 지인이 있는 직장	17.3	12.3	20.5	19.5	22.7	21.4
비슷한 정체성의 동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장	17.1	13.8	16.6	14.6	18.7	24.7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가 명시된 직장	15.8	11.3	16.2	14.6	24.0	22.9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직업	14.5	12.1	11.4	19.5	34.7	19.6
인권단체, 시민단체	10.4	8.6	8.8	14.6	13.3	15.8
성소수자라는 점이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직업	8.6	4.9	11.9	9.8	5.3	11.6
고향 친구, 동창 등 아는 사람을 만날 일이 없는 직장	7.8	4.6	9.1	17.1	13.3	9.8
외국계 회사	7.4	6.6	8.8	7.3	5.3	7.1
자영업	4.2	3.2	4.5	4.9	14.7	3.6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 직장	4.1	1.5	1.5	19.5	26.7	6.5
남성이 많은 직장	2.1	0.6	4.8	0.0	6.7	0.3
기타	1.4	0.7	1.1	4.9	5.3	2.1

최근 5년간 구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 3,318명에게 구직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했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722명(22.6%)이 구직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구직 과정에서 차별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꼽은 구체적인 차별 사유로는 ‘내 외모, 복장, 말투, 행동 등이 남자/여자답지 못하다고 부정적인 반응이나 평가를 받았다’가 7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젠더퀴어 응답자가 응답한 차별

경험으로는 ‘성소수자 정체성과 관련하여 직장에 지원하는 것을 포기했다’, ‘지원 서류를 제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주민등록번호에 제시된 성별과 외모 또는 성별표현이 일치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서류에 법적 성별을 정정한 것이 드러날 수 있는 대기업이나 공공서에 지원하는 것을 포기했다’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트랜스젠더 남성(FTM)의 8.8%와 트랜스젠더 여성(MTF)의 17.9%는 성소수자 정체성으로 인해 입사가 취소되거나 채용이 거부된 적이 있다고 응답해 많은 트랜스젠더가 구직 과정에서 심각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구직 과정에서의 차별 경험

단위(%) (중복응답)	전체 (n=3,318)	시스젠더 여성 (n=1,457)	시스젠더 남성 (n=1,226)	FTM (n=56)	MTF (n=97)	논바이너리/ 젠더퀴어 (n=482)
차별을 경험한 적 있다	22.6	17.5	13.3	60.7	69.1	42.1
*차별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한 응답자	전체 (n=722)	시스젠더 여성 (n=255)	시스젠더 남성 (n=163)	FTM (n=34)	MTF (n=67)	논바이너리/ 젠더퀴어 (n=203)
내 외모, 복장, 말투, 행동 등이 남자/여자답지 못하다고 부정적인 반응이나 평가를 받았다	73.7	82.0	66.9	50.0	56.7	78.3
성소수자 정체성과 관련하여 직장에 지원하는 것을 포기했다	19.1	8.6	16.6	35.3	46.3	22.7
지원 서류를 제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예: 출신 학교 및 병역사항 기재, 사진 첨부 등)	16.6	6.3	16.6	29.4	47.8	17.2
주민등록번호에 제시된 성별과 외모 또는 성별표현이 일치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11.4	1.2	1.2	38.2	43.3	17.2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평가를 받았다	9.6	11.0	10.4	2.9	4.5	9.9
입사가 취소되거나, 채용이 거부되었다	5.4	2.7	2.5	8.8	17.9	6.4
서류에 법적 성별을 정정한 것이 드러날 수 있는 대기업이나 공공서에 지원하는 것을 포기했다	3.0	0.4	1.2	14.7	14.9	2.0
기타	2.2	1.6	4.9	2.9	1.5	1.0

급여를 받으며 고용되어 있는 응답자 1,371명의 고용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종사상 지위, 노동 시간, 고용 형태, 주휴수당과 최저시급 적용 여부,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을 질문하였다.

종사상 지위의 분포는 상용직이 71.2%, 임시직이 26.8%, 일용직이 2.0%를 차지했다. 노동시간별로 살펴보면 전일제로 고용된 응답자가 75.7%, 시간제로 고용된 응답자가 24.3%였다. 고용 형태의 분포는 직접고용이 93.2%, 파견이 3.8%, 용역이 1.5%를 차지했다. 주휴수당을 적용받는다라는 응답자는 62.5%,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19.5%를 차지했고, 이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응답도 18.0%를 차지했다. 최저시급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응답자는 19.5%였다. 응답자의 단 10%만이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가입된 상태라고 응답하였으며, 56.9%는 현재 직장에 노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정체성별로 고용 상태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트랜스젠더 여성(MTF)이 열악한 상태에서 일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났다. 트랜스젠더 여성(MTF)은 상대적으로 임시직(39.5%) 및 시간제(39.5%)로 고용되어 있는 비중이 높고, 주휴수당(47.4%) 및 최저시급(89.5%)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또한 많았다.

표 24 고용상태의 특성 및 분포

단위(%)		전체 (n=1,371)	시스젠더 여성 (n=518)	시스젠더 남성 (n=622)	FTM (n=20)	MTF (n=38)	논바이너리/젠 더퀴어 (n=173)
종사상 지위	상용직	71.2	67.8	77.2	80.0	52.6	63.0
	임시직	26.8	29.3	22.0	15.0	39.5	34.7
	일용직	2.0	2.9	0.8	5.0	7.9	2.3
노동 시간	전일제	75.7	72.6	81.8	70.0	60.5	67.1
	시간제	24.3	27.4	18.2	30.0	39.5	32.9
고용 형태	직접고용	93.2	94.6	93.1	90.0	86.8	91.3
	파견업체	3.8	3.5	4.0	0.0	7.9	3.5
	용역업체	1.5	1.2	1.3	10.0	2.6	2.3
	모름	1.5	0.8	1.6	0.0	2.6	2.9
주휴 수당	적용 받음	62.5	60.8	66.2	70.0	47.4	56.6
	적용 받지 않음	19.5	22.4	15.1	10.0	26.3	26.0
	모름	18.0	16.8	18.6	20.0	26.3	17.3
최저 시급	최저시급 이상	93.8	95.2	92.9	100.0	89.5	93.1
	최저시급 미만	6.2	4.8	7.1	0.0	10.5	6.9
노동 조합	가입함	10.0	7.7	13.7	5.0	2.6	5.8
	존재하나, 가입 대상 아님	7.5	6.4	8.5	15.5	13.2	5.2
	존재하나, 가입 안 함	7.6	4.6	10.3	0.0	2.6	8.7
	노조가 없음	56.9	56.4	55.5	55.5	60.5	63.0
	노조가 있는지 모름	18.0	24.9	12.1	25.0	21.1	17.3

직장 내 경험과 관련하여 급여를 받으며 고용되어 있는 응답자 1,371명 가운데 73.3%는 현재 직장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거나 속였다고 응답하였다. 본인의 성소수자 정체성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언행을 경험하거나(12.3%), 동료가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20.7%)도 적지 않았다. 또, 직장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태

도를 경험했다고 답한 경우도 42.5%에 달해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의 직장 경험이 성소수자에게 친화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5 직장 내 경험

단위(%), 그렇다	전체 (n=1,371)	시스젠더 여성 (n=518)	시스젠더 남성 (n=622)	FTM (n=20)	MTF (n=38)	논바이너리/ 젠더퀴어(n =173)
직장에서 본인의 성소수자 정체성을 드러냈음	13.2	15.3	9.0	15.0	21.1	20.2
직장에서 본인의 성소수자 정체성을 숨기거나 속였음	73.3	70.8	76.2	60.0	81.6	69.9
본인의 성소수자 정체성으로 인해 부정적인 언행을 경험함	12.3	10.6	12.9	15.0	13.2	14.5
동료가 그의 성소수자 정체성으로 인해 부정적인 언행을 경험하는 것을 듣거나 보았음	20.7	18.5	22.7	20.0	21.1	20.2
직장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경험함	42.5	42.3	42.4	45.0	36.8	44.5

급여를 받으며 고용되어 있는 응답자 1,371명 가운데 직장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문제에 대한 응답은 ‘남들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느낀다’(52.3%),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 조심해야 하므로 스트레스가 심하다’(51.4%), ‘가급적 업무 이외의 직장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51%), ‘상사가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해도 가급적 따르는 편이다’(43.3%), ‘이직을 고민한다’(42.1%), ‘소속감이 없다’(37.6%), ‘배우자/자녀 관련 대화에서 배제되어 소외감이 든다’(37.1%), ‘직장에서 인간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26.7%), ‘정체성을 숨기느라 업무에 지장을 받거나 생산성이 떨어진다’(9.7%) 순으로 나타났다.

표 26 직장 생활의 어려움

전체(n)=1,371 단위(%)	그렇다*
남들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느낀다	52.3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 조심해야 하므로 스트레스가 심하다	51.3
가급적 업무 이외의 직장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	51.0
상사가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해도 가급적 따르는 편이다	46.3
이직을 고민한다	42.1
소속감이 없다	37.6
배우자/자녀 관련 대화에서 배제되어 소외감이 든다	37.1
직장에서 인간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26.7
정체성을 숨기느라 업무에 지장을 받거나 생산성이 떨어진다	9.7

*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한 값임.

급여를 받으며 고용되어 있는 응답자 1,371명 가운데 69.5%가 현재 직장에서 성소수자 관련 정책이 전혀 없다고 답했으며, 17.4%는 모르겠다고 답하였다. 현재 직장에서 펴고 있다고 답한 정책으로는 '차별금지 명시'(9.3%), '직장 내 인식 개선 교육이나 캠페인'(4.4%) 등이 있었다.

표 27 직장 내 성소수자 정책

전체(n)=1,371 (중복응답)	있다(%)
차별금지 명시	9.3
직장 내 인식 개선 교육이나 캠페인	4.4
성소수자 관련 사회 공헌 사업	2.3
복리후생 제도에서 동성 파트너 고려	2.1
경영진의 지원 선언	1.8
성소수자 고객을 고려한 서비스나 상품 제공	1.6
트랜스젠더 직원에게 복장/두발 자율성 보장	1.4
상담창구 개설	1.4
트랜스젠더 직원이 호르몬요법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휴가사용 지원	1.0
직장 내 성소수자(또는 지지자) 직원 모임 운영	0.7
기타	0.7
모르겠다	17.4
위와 같은 정책이 전혀 없다	69.5

전체 응답자들이 성소수자로서 직장생활을 잘 하는 데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로는 '커밍아웃을 할 수 있는 분위기'(61.6%),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에 대한 구제절차나 기구 존재'(49.5%), '직장 내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교육프로그램'(36.9%)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직장 내 성소수자 욕구

전체(n)=3,911 (중복응답)	%
커밍아웃을 할 수 있는 분위기	61.6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에 대한 구제절차나 기구 존재	49.5
직장 내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36.9
나의 파트너에 대한 사내복지 적용	27.4
직장 내 성소수자 및 지지자 사원을 위한 모임	19.7
성소수자로 구성된 노동조합 결성	8.9

5) 건강 및 심리상태

1점부터 5점 사이로 답하도록 한 응답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는 전체 평균 3.3(SD=0.9)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청년 집단 주관적 건강 상태 평균 4.28, 2019년 「한국복지패널」의 19~34세 주관적 건강 상태 평균 4.09과 비교하면 청년 성소수자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전체적으로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되었다. 성별정체성별로 살펴본 주관적 건강 상태 평균은 시스젠더 남성이 3.5로 비교적 높았으며, 시스젠더 여성 3.2, 트랜스젠더 남성(FTM) 3.1, 논바이너리/젠더퀴어 3.0, 트랜스젠더 여성(MTF) 2.9의 순서로 분포하여, 시스젠더에 비해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젠더퀴어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주관적 건강 상태를 부정적으로 보고한 것을 알 수 있다. 성적지향별 평균은 게이 3.5, 레즈비언 3.3, 바이섹슈얼 3.2, 에이섹슈얼 3.0, 퀴어 3.0으로 나타나, 에이섹슈얼과 퀴어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주관적 건강 상태를 부정적으로 보고하였다.

표 29 주관적 건강 상태

	평균(표준편차)
전체(n=3,911)	3.3(0.9)
레즈비언(n=716)	3.3(0.9)
게이(n=1,267)	3.5(0.9)
바이섹슈얼(n=1,298)	3.2(0.9)
에이섹슈얼(n=285)	3.0(0.9)
퀴어(n=321)	3.0(0.9)
시스젠더 여성(n=1,704)	3.2(0.9)
시스젠더 남성(n=1,467)	3.5(0.9)
FTM(n=62)	3.1(0.9)
MTF(n=109)	2.8(1.0)
논바이너리/젠더퀴어(n=569)	3.0(0.9)

다음으로는 응답자들에게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하셨습니까?”라고 묻고 1점에서 10점 사이로 답하도록 했다. 응답자의 주관적 행복도의 전체 평균은 5.9점(SD=2.2)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청년 집단 주관적 행복도 6.8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성별정체성별로 나누어 보면 시스젠더 여성(6.0)과 남성

(6.2)에 비해 트랜스젠더 남성(FTM)(5.5), 트랜스젠더 여성(MTF)(4.8), 논바이너리/젠더퀴어(5.4)에서 주관적 행복도가 부정적인 응답 경향을 보였다. 성적지향별로 나누어보면 게이(6.2)가 가장 높았고, 레즈비언(6.0), 바이섹슈얼(5.9), 퀴어(5.5), 에이섹슈얼(5.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0 주관적 행복도

	평균(표준편차)
전체(n=3,911)	5.9(2.2)
레즈비언(n=716)	6.0(2.1)
게이(n=1,267)	6.2(2.1)
바이섹슈얼(n=1,298)	5.9(2.2)
에이섹슈얼(n=285)	5.4(2.1)
퀴어(n=321)	5.5(2.1)
시스젠더 여성(n=1,704)	6.0(2.1)
시스젠더 남성(n=1,467)	6.2(2.1)
FTM(n=62)	5.5(2.3)
MTF(n=109)	4.8(2.4)
논바이너리/젠더퀴어(n=569)	5.4(2.1)

다음으로는 우울 증상 및 정신과 경험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였다. 응답자들의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해 우울감 척도(CES-D 11)를 활용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우울감 척도 (CES-D) 11개 문항에 대해 2, 7번 문항을 역코딩하고 1~4점을 0~3점으로 계산하여 합한 총점을 20/11로 곱한 결과를 바탕으로 16보다 높은 경우 우울 증상을 의심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응답자의 우울감 척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우울 증상을 의심할 수 있음(16점 초과)에 해당하는 비율이 49.8%로, 응답자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최근 일주일 동안 우울 증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체성별로 살펴보면 성적지향에서는 퀴어의 63.2%, 에이섹슈얼의 57.2%, 바이섹슈얼의 53.5%, 성별정체성에서는 트랜스젠더 여성(MTF)의 71.6%, 논바이너리/젠더퀴어의 68.2%, 트랜스젠더 남성(FTM)의 53.2%가 최근 일주일 동안 우울 증상을 겪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더불어 최근 1년간 정신과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지와 정신과에서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한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전체 응답자의 37.6%는 최근 1년간 정신과를 방문한 경험이 있었으며, 30.8%는 정신과에서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한 적이 있었다. 특히 성적지향별로는 퀴어, 에이섹슈얼, 바이섹슈얼, 성별정체성별로는 논바이너리/젠더퀴어, 트랜스젠더 여성

(MTF), 트랜스젠더 남성(FTM)의 정신과 방문 경험 및 약물 경험 비율이 높게 응답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서는 우울 증상 척도가 16점을 넘거나 ‘지난 1년 사이에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청년 367명에 한정해서 전문가(의사, 상담가)와 상담한 경험과 약물을 처방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사 응답자의 단 11.9%만이 전문가를 만났다고 응답했고, 8.4%만이 정신적인 문제로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등의 약물을 처방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본 조사의 경우, 우울증상 척도가 16점을 넘는 응답자 1,949명 가운데 50.1%가 최근 1년간 정신과를 방문한 경험이 있었고, 43.0%가 정신과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우울 증상 및 정신과 경험

단위(%)	우울증상 (CES-D 11 척도 16점 초과) (최근 일주일)	정신과 방문 경험 (최근 1년)	정신과 약물 경험 (최근 1년)
전체(n=3,911)	49.8	37.6	30.8
레즈비언(n=716)	49.2	36.0	29.7
게이(n=1,267)	41.2	26.9	21.6
바이섹슈얼(n=1,298)	53.5	42.8	35.3
에이섹슈얼(n=285)	57.2	47.7	36.8
퀴어(n=321)	63.2	51.7	44.5
시스젠더 여성(n=1,704)	49.9	38.0	30.5
시스젠더 남성(n=1,467)	40.8	27.3	21.7
FTM(n=62)	53.2	40.3	33.9
MTF(n=109)	71.6	50.5	45.0
논바이너리/젠더퀴어(n=569)	68.2	59.8	52.2

다음으로는 최근 1년간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 경험에 대해 물었다. 전체 응답자의 41.5%는 최근 1년간 진지하게 자살을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8.2%는 최근 1년간 실제로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서 청년들에게 ‘자살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를 물었더니 단 2.74%만이 ‘그렇다’고 응답한 것에 비추어 보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특히 정체성별로 살펴보면 논바이너리/젠더퀴어(62.9%), 트랜스젠더 남성(FTM)(59.7%), 트랜스젠더 여성(MTF)(58.7%)에서 최근 1년간 자살 생각 응답이 높게 보고되었으며, 실제 자살 시도 또한 트랜스젠더 여성(MTF)(20.2%), 트랜스젠더 남성(FTM)(12.9%), 논바이너리/젠더

퀴어(12.1%)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림 6 최근 1년간 자살 생각



표 32 최근 1년간 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

비율(%)	자살 생각 (최근 1년)	자살 시도 (최근 1년)
전체(n=3,911)	41.5	8.2
레즈비언(n=716)	41.8	9.1
게이(n=1,267)	28.9	4.8
바이섹슈얼(n=1,298)	47.2	9.3
에이섹슈얼(n=285)	52.6	10.9
퀴어(n=321)	55.8	11.2
시스젠더 여성(n=1,704)	43.7	9.1
시스젠더 남성(n=1,467)	28.6	4.4
FTM(n=62)	59.7	12.9
MTF(n=109)	58.7	20.2
논바이너리/젠더퀴어(n=569)	62.9	12.1

전체 응답자 3,911명 가운데 HIV 상태를 양성으로 응답한 자는 75명(1.9%)이었다. 응답자의 59.4%는 자신의 HIV 감염 여부를 음성이라고 응답하였으며, 38.6%는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정체성별로 살펴보면 게이 가운데 5.0%가 HIV 양성으로 응답하였고, 28.4%는 자신의 HIV 상태를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트랜스젠더 여성(MTF)의 경우 2.8%가 HIV 양성으로 응답하였다.

표 33 HIV 상태

단위(%)	HIV 양성	HIV 음성	모르겠음
전체(n=3,911)	1.9	59.4	38.6
레즈비언(n=716)	0.1	56.4	43.4
게이(n=1,267)	5.0	66.6	28.4
바이섹슈얼(n=1,298)	0.6	58.2	41.2
에이섹슈얼(n=285)	0.4	53.7	46.0
퀴어(n=321)	0.6	48.0	51.4

시스젠더 여성(n=1,704)	0.2	56.6	43.3
시스젠더 남성(n=1,467)	4.4	66.5	29.0
FTM(n=62)	0.0	53.2	46.8
MTF(n=109)	2.8	58.7	37.6
논바이너리/젠더퀴어(n=569)	0.7	50.6	48.7

6) 코로나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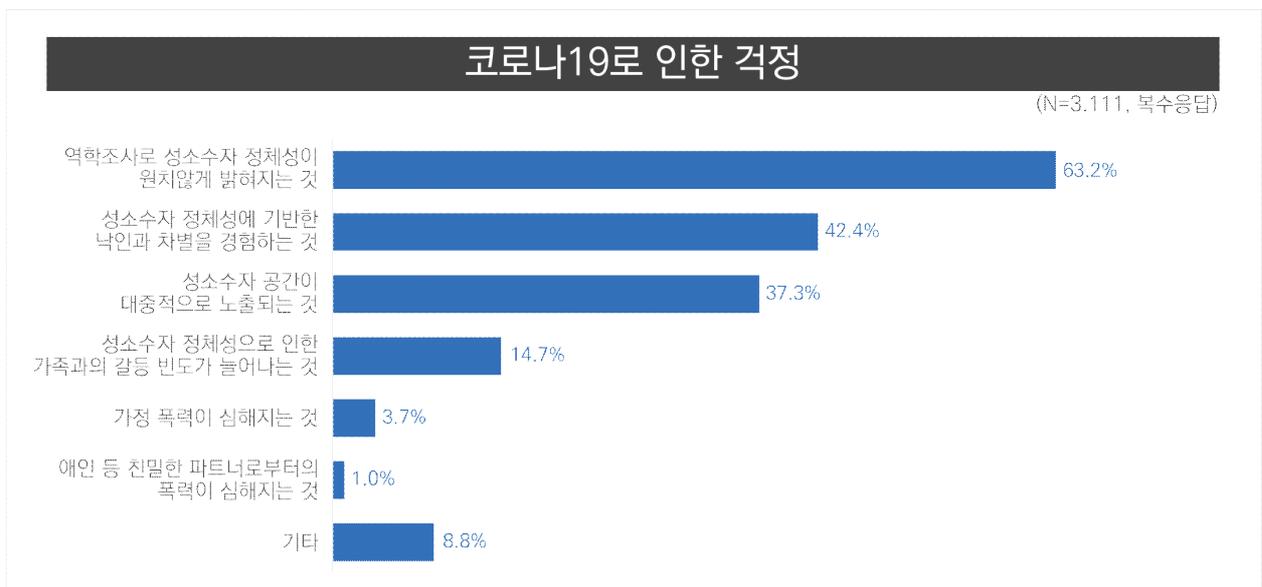
다음으로는 코로나19에 관련된 응답자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먼저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하여 "내가 확진 환자가 될까봐 두렵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4.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내가 확진 환자가 될 경우 그로 인해 주변으로부터 비난이나 피해를 받을 것 같아서 두렵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61.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두 질문에 대한 응답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주변의 비난이나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신이 확진 환자가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걱정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게이(-1.4%)와 트랜스젠더 남성(FTM)(-1.6%)에서는 자신이 확진 환자가 되는 것 자체보다 주변으로부터의 비난이나 피해에 대한 걱정이 다소 크게 나타난 반면, 에이섹슈얼(+10.5%)과 레즈비언(+6.5)에서는 자신이 감염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걱정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작년 이태원에서 발생한 게이 클럽 집단 감염 및 그에 대한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와 사회적 낙인, 실제 게이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아웃팅 피해 등으로 인한 차이로 추측해볼 수 있다.

표 34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

단위(%)*	내가 확진환자가 될까봐 두렵다(A)	주변으로부터 비난이나 피해를 받을까봐 두렵다(B)	A-B
전체(n=3,911)	64.6	61.2	3.4
레즈비언(n=716)	64.2	57.8	6.4
게이(n=1,267)	60.4	61.8	-1.4
바이섹슈얼(n=1,298)	67.3	63.1	4.2
에이섹슈얼(n=285)	68.4	57.9	10.5
퀴어(n=321)	67.3	62.0	5.3
시스젠더 여성(n=1,704)	67.3	60.8	6.5
시스젠더 남성(n=1,467)	60.1	61.0	-0.9
FTM(n=62)	58.1	59.7	-1.6
MTF(n=109)	64.2	63.3	0.9
논바이너리/젠더퀴어(n=569)	68.7	62.4	6.3

한편 응답자들이 꼽은 성소수자 정체성과 관련한 코로나19로 인한 걱정이나 스트레스로는 ‘역학조사로 성소수자 정체성이 원치 않게 밝혀지는 것’(63.2%),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낙인과 차별을 경험하는 것’(42.4%), ‘이태원 등 성소수자 공간이 대중적으로 노출되는 것’(37.3%)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림 7 코로나19로 인한 걱정



응답자들 중 85.1%가 코로나19로 인해 성소수자 지인 및 커뮤니티와의 관계가 달라졌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이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졌다’(57.6%), ‘오프라인 모임에 잘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39.9%), ‘성소수자 관련 오프라인 행사가 취소되었다’(32.4%),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만남이 줄어들었다’(21.4%)는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표 35 코로나19로 인한 커뮤니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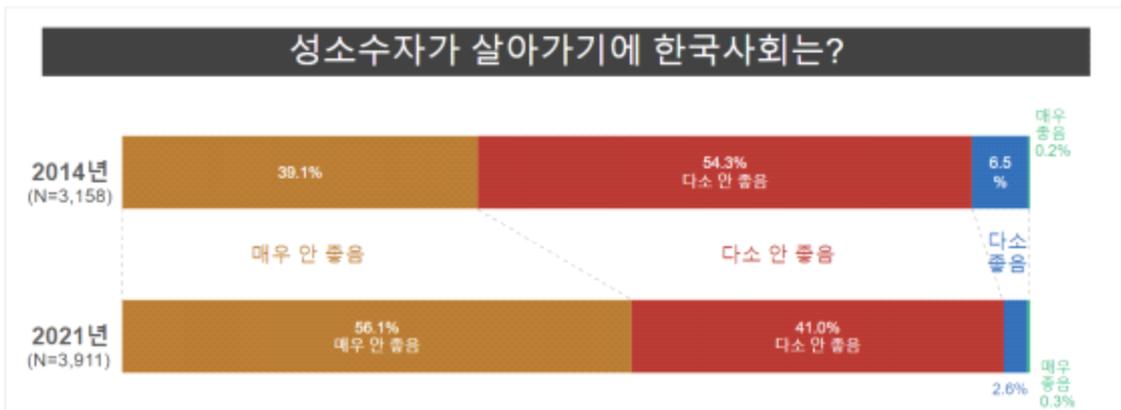
변화 내용	전체(N)=3,911 (중복응답)	%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졌다		57.6
오프라인 모임에 잘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		39.9
성소수자 관련 오프라인 행사가 취소되었다		32.4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만남이 줄어들었다		21.4
활동하던 모임이 활동이 저조해지거나 해산하였다		19.6
변화한 게 없다		14.9
가까운 지인 및 애인과 더 자주 만난다		14.3

줌(zoom), 디스코드 등 비대면 사적모임이 늘었다	13.7
자주 가던 성소수자 업소가 사라졌다	12.1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행사가 많아졌다	8.1
성소수자 행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참여가 쉬워졌다	7.4
기타	1.1

7) 사회정치적 욕구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성소수자가 살아가기에 한국사회는 어떠합니까?"라고 물었을 때, '매우 안 좋다'고 답한 응답자는 2,195명(56.1%), '다소 안 좋다'고 답한 응답자는 1,603명(41%)로 응답자 대부분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다소 좋다'고 답한 응답자는 100명(2.6%), '매우 좋다'고 답한 응답자는 13명(0.3%)였다. 이를 2014년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와 비교해보면, 부정적인 견해('매우 안 좋음'과 '다소 안 좋음')의 응답 비중이 93.4%에서 97.1%로 소폭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 한국 사회 평가



다음으로는 각 조직(영역)별로 성소수자에 대한 우호도 및 비우호도를 평가해달라고 질문 하였다. 응답자들에게 제시한 대부분의 조직들이 성소수자에게 비우호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대(91.4%), 개신교(91.3%), 국회(89.0%), 정부(88.4%), 국민의힘(83.1%), 사법부(82.4%), 경찰(82.3%) 언론 매체(79.9%)가 성소수자에게 비우호적이라는 응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성소수자에게 우호적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은 조직(영역)은 정의당(60.8%)과 불교(52.9%)에 불과했다. 한편 2014년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와 비교해보면, 성소수자에 비우호적이라는 응답 비율이 줄어든 조직(영역)은 정의당

(진보정당), NGO 등 시민사회, 노동조합, 기업, 학계, 의료계, 불교, 천주교였고, 반대로 성소수자에 비우호적이라는 응답 비율이 늘어난 조직(영역)은 국회, 정부, 사법부,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민의힘(새누리당), 언론 매체, 대중문화 산업, 군대, 개신교로 나타났다.

표 36 성소수자 우호도 평가

	2021년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조사 (%, n=3,911)			2014 한국 LGBTI 사회적 욕구조사 (%, n=3,158)		
	우호적	비우호적	모르겠음	우호적	비우호적	모르겠음
국회	1.2	89.0	9.7	1.5	81.9	16.6
정부	2.4	88.4	9.2	1.6	83.1	15.3
사법부	3.0	82.4	14.6	5.1	75.1	19.8
경찰	1.7	82.3	16.0	-	-	-
더불어민주당(민주당)	5.7	71.9	22.4	14.9	51.7	33.3
국민의힘(새누리당)	1.0	83.1	16.0	1.3	75.9	22.8
정의당(진보정당)	60.8	17.9	21.3	37.6	29.3	33.2
NGO 등 시민사회	44.0	22.7	33.3	46.3	23.1	30.5
노동조합	15.6	42.5	41.9	9.4	49.9	40.7
언론 매체	4.6	79.9	15.6	13	65.0	22
대중문화 산업	32.9	46.4	20.7	35.4	43.8	20.8
기업	4.6	71.7	23.7	3.4	74.1	22.5
학계	17.1	52.4	30.5	11.2	65.1	23.7
의료계	14.8	50.3	35.0	8.3	61.7	30
심리상담 기관	44.0	22.7	33.3	-	-	-
군대	0.5	91.4	8.2	0.8	86.9	12.2
불교	52.9	18.5	28.6	28.3	40.4	31.3
천주교	17.7	54.5	27.8	20.8	56.7	22.5
개신교	0.5	91.3	8.2	0.6	86.8	12.5

다음으로는 “지난 5년간,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불관용, 폭력이 늘어났습니까? 혹은 그대로이거나 줄어들었습니까?”라고 물었다. 전체 응답자의 35.7%는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났다’고 응답한 반면 32.4%는 ‘줄어들었다’고 응답하였고, 23.6%는 ‘그대로이다’, 8.4%는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정체성별로 살펴보면 에이섹슈얼(50.9%), 트랜스젠더 남성(FTM)(59.7%), 트랜스젠더 여성(MTF)(54.1%), 논바이너리/젠더퀴어(52.9%)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지난 5년간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났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레즈비언의 경우 유일하게 지난 5년간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났다’(27.7%)는 응답보다 ‘줄어들었다’(39.4%)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37 지난 5년간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변화

단위(%)*	전체 (n=3,911)	레즈비언 (n=716)	게이 (n=1,267)	바이섹슈얼 (n=1,298)	에이섹슈얼 (n=285)	퀴어 (n=321)	FTM (n=62)	MTF (n=109)	논바이너리 /젠더퀴어 (n=569)
늘어났다	35.7	27.7	34.8	36.9	50.9	38.6	59.7	54.1	52.9
그대로이다	23.6	23.7	25.4	22.7	20.4	22.4	9.7	19.3	19.2
줄어들었다	32.4	39.4	32.7	32.0	20.0	28.3	19.4	17.4	21.3
모르겠다	8.4	9.2	7.1	8.3	8.8	10.6	11.3	9.2	6.7

* '크게 늘어났다'와 '다소 늘어났다'를 합쳐서 '늘어났다'로, '크게 줄어들었다'와 '다소 줄어들었다'를 합쳐서 '줄어들었다'로 계산하였음.

또, 응답자들에게 부정적 인식이 변화한 원인을 3개 이하로 응답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든 주된 이유로 '일상 속 성소수자들의 가시화'(70%)를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미디어의 긍정적 보도 증가'(40.3%), '시민사회의 지지'(40%), '영향력 있는 사람의 커밍아웃'(37.5%), '공인과 유명인사의 지지'(2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8 부정적 인식이 줄어든 이유

전체(n)=1,266 (3개 이하 중복응답)	%
일상 속 성소수자들의 가시화	70.0
미디어의 긍정적 보도 증가	40.3
시민사회의 지지	40.0
영향력 있는 사람의 커밍아웃	37.5
공인과 유명인사의 지지	24.1
성소수자 친화적인 교육 실시	8.1
정치인 및 정당의 긍정적인 태도와 담화	7.3
법과 정책의 긍정적인 변화	5.3
종교 단체의 지지	1.0
기준에 존재하는 법과 정책이 잘 시행됨	0.7
모르겠음	2.8
기타	4.5

반면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했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난 주된 이유로는 '종교 단체의 조직적인 반대'(62.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미디어의 부정적 보도 증가'(50.5%), '정치인 및 정당의 모욕적

인 언행'(33.7%), '성소수자 차별적인 교육'(32.2%), '시민사회의 지지 부족'(24.9%), '일상 속 성소수자들의 가시화 부족'(2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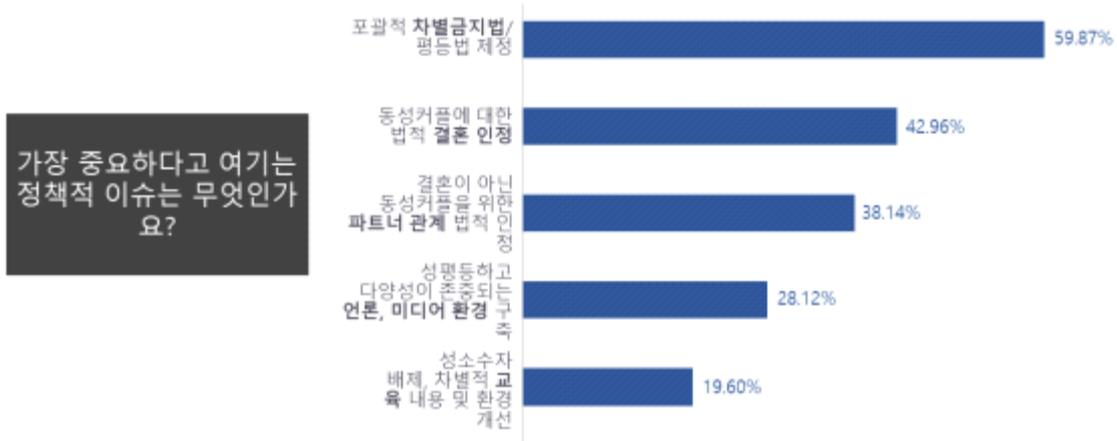
표 39 부정적 인식이 늘어난 이유

전체(n)=1,397 (3개 이하 중복응답)	%
종교 단체의 조직적인 반대	62.7
미디어의 부정적 보도 증가	50.5
정치인 및 정당의 모욕적인 언행	33.7
성소수자 차별적인 교육	32.2
시민사회의 지지 부족	24.9
일상 속 성소수자들의 가시화 부족	23.4
법과 정책의 부정적인 변화	16.9
기존에 존재하는 법과 정책이 잘 시행되지 않음	12.0
영향력 있는 사람의 커밍아웃 부족	5.8
공인과 유명인사의 지지 부족	4.6
모르겠음	0.9
기타	7.6

다음으로는 성소수자와 관련된 정책 가운데 무엇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3개 이하로 고르게 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60.3%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그밖에도 응답자들은 '동성커플에 대한 법적 결혼 인정'(42.5%), '결혼이 아닌 동성커플을 위한 파트너 관계 법적 인정'(38.0%), '성평등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언론·미디어 환경 구축'(27.8%), '성소수자 배제·차별적 교육 내용 및 환경 개선'(19.6%) 등을 중요한 정책적 변화라고 응답하였다.

정체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레즈비언을 제외한 모든 정체성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이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레즈비언 응답자 가운데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한 정책은 '동성커플에 대한 법적 결혼 인정'(57.7%)이었다. 한편 게이 응답자들은 다른 정체성에 비해 'HIV/AIDS 예방과 감염인 지원'(15.4%)을 중요한 정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트랜스젠더 남성(FTM), 트랜스젠더 여성(MTF), 논바이너리/젠더퀴어는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화 및 공적 문서에서 불필요한 성별표기 삭제',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변경을 위한 법률 제정', '트랜스젠더와 간성의 의료적 조치에 건강보험 적용' 등을 중요한 정책으로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9 가장 중요한 성소수자 관련 정책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정책적 이슈는 무엇인가요?

표 40 가장 중요한 성소수자 관련 정책

단위(%) (3개 이하 중복응답)	전체 (n=3,911)	레즈비언 (n=716)	게이 (n=1,267)	바이 (n=1,298)	에이섹슈얼 (n=285)	퀴어 (n=321)	FTM (n=62)	MTF (n=109)	논바이너리/젠더 퀴어 (n=569)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60.3	52.9	57.6	61.4	70.2	72.6	56.5	60.6	75.7
동성커플에 대한 법적 결혼 인정	42.5	57.7	42.1	42.1	23.2	30.8	29.0	19.3	26.7
결혼이 아닌 동성커플을 위한 파트너 관계 법적 인정	38.0	46.9	38.8	36.6	28.4	31.5	22.6	9.2	28.1
성평등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언론·미디어 환경 구축	27.8	30.9	24.6	30.4	26.0	27.4	11.30	9.20	21.60
성소수자 배제·차별적 교육 내용 및 환경 개선	19.6	21.1	17.4	20.0	23.5	20.6	12.90	7.30	21.10
군형법 상 동성간 성행위 처벌 조항(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17.3	7.5	29.6	12.6	11.2	16.8	9.7	4.6	17.0
성평등 정책에 있어 성소수자 인권보장 포함	17.3	18.2	17.8	17.0	15.4	15.9	14.5	14.7	16.9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정책 마련	12.4	11.7	13.5	11.9	11.9	12.1	6.5	11.0	11.8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화 및 공적 문서에서 불필요한 성별표기 삭제	8.0	5.0	2.0	9.5	23.9	16.5	33.90	23.90	23.70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변경을 위한 법률 제정	7.2	4.9	3.7	7.9	14.7	14.0	30.60	48.60	12.10
HIV/AIDS 예방과 감염인 지원	7.1	1.5	15.4	4.4	1.4	2.8	1.60	6.40	3.20
성소수자 고용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구제	6.9	7.4	6.0	7.2	7.0	6.9	6.50	7.30	7.00
트랜스젠더와 간성의 의료적 조치에 건강보험 적용	6.0	3.4	1.6	8.2	12.6	11.8	30.60	45.90	15.10
성소수자 친화적인 상담 인프라 구축	4.4	2.9	4.5	5.5	5.3	2.2	3.2	6.4	3.3
성소수자 친화적인 보건의료	3.9	4.3	3.2	3.9	4.6	4.4	1.60	9.20	6.90

지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에 대한 바람, 성소수자의 존재가 부정되지 않고 동등한 사람으로 존중받고자 하는 바람이 담겨 있었다. ‘평범함’(4.5%, 77건)과 ‘자유’(3.2%, 56건)에 포함되는 의견으로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사회, 성소수자임이 자연스럽게 당연해져서 숨지 않고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사회에 대한 바람이 담겨 있었다.

정책적 변화에 대한 요구도 서술형 응답의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법/제도’(3.2%, 56건), ‘차별금지법’(3.5%, 61건), ‘동성혼’(3.4%, 59건), ‘가족구성권’(1.7%, 30건), ‘교육’(1.5%, 26건) 등의 주제는 법과 제도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인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변화를 바라면서, 차별금지법, 동성혼, 다양한 가족구성권, 성소수자 관련 인권 교육의 필요성을 요청하였다.

그밖에도 다양한 정체성과 교차성에 대한 이해를 요청하면서 함께 연대하자는 ‘연대’가 4.4%(76건), 모두의 행복과 건강을 바라는 ‘기원’이 2.8%(48건), 안전한 환경과 성소수자가 죽지 않는 사회를 바라는 ‘안전’이 2.36%(41건), 보수적인 개신교에 대한 비판을 담은 ‘개신교’가 0.6%(10건)을 차지하였다.

성소수자 정체성의 가시화와 더 평등한 커뮤니티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더 다양하고 접근성 높은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커뮤니티’가 2.9%(50건),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의 차별과 혐오에 대한 자성을 요청하는 ‘자성’이 4.9%(85건)을 차지했다. 성소수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편견’은 2.9%(50건)을 차지했으며, 성소수자의 ‘가시화’(1.8%, 31건), ‘무성애’의 가시화(0.5%, 8건), ‘레즈비언’의 가시화(0.2%, 3건) 등의 의견도 존재했다.

페미니즘과 트랜스젠더에 대한 갈등적인 의견 또한 일부 표출되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비판하는 ‘트랜스젠더’가 1.0%(18건)을 차지한 데 반해, 래디컬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비판하는 의견이 0.6%(11건)을 차지했다. ‘페미니즘’에 대한 지지를 담은 의견은 0.9%(16건)을 차지한 반면,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을 담은 주장은 0.7%(12건)을 차지했다. 그밖에도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보다 ‘건전’한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3.6%, 62건)과 구태여 안 좋은 모습을 보이지 말고 그냥 ‘방관’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1.6%, 28건)도 존재했다.

그밖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답변이 2.2%(38건),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0.6%(11건), 그 외 분류가 어려운 항목이 15.8%(275건)을 차지했다.

한국 사회는 일단 차별금지법부터 좀 통과가 되고 법적으로 인권을 보장해 준 다음에 사회적 인식도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참여자 31, 트랜스젠더 남성, 무성애자, 29세)

사회에 바라는 점? 사회라기보다는 퀴어를 그리는 미디어에 바라는 점인데요. 퀴어를 그릴 때 굉장히 불행하게만 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사연이 많고, 무슨 불행이 있고, 맨날 그런 이미지로만 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29, 트랜스젠더 남성, 팬섹슈얼 데미로맨틱, 26세)

한국 사회에 바라는 점은 그냥 뭐랄까요. 뭔가 거창하게 커다란 걸 바라진 않고 요즘에는 다들 그냥 '너는 그런 사람이구나. 난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인정하는 분위기잖아요. 별로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터치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게이나 레즈비언이나 이미 많이 가시화된 성소수자들한테는 관대한데 우리 같은 트랜스젠더들이나 혹은 이제 아직까지도 가시화되지 않은 정체성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박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거는 좀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네요 (참여자 30, 트랜스젠더 남성, 30세)

우리의 존재가 인정받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까 봐. 20~30년, 40년 이런 게 이런 식으로 많이 걸릴까봐 솔직히 말하자면 불안하긴 하는데 일단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싶고. 그러니까 제 세대가 아니더라도 제 이후에 세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성 지향성이라든지 성 정체성 이런 것 때문에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거 느끼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참여자 26, 시스젠더 남성, 바이섹슈얼, 21세)

뭔가 교차성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의 정체성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좀 연대를 위해서 조금씩 더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성소수자 커뮤니티 안에 속해 있는 모두 혹은 스스로 이제 속해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성소수자들도 많이 있겠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좀 더 많이 더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사실 몇 년 동안 매년 한 두 명씩 알고 지내던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라든가 혹은 성소수자 친구가 계속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게, 저는 스스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고 단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만약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좀 더 돌보고 서로 좀 더 연대하고 잘 살필 수 있고 함께 나아갈 수 있게 계속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자 17, 시스젠더 남성, 게이, 33세)

4. 연구의 함의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연구의 함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보고서에서는 크게 1) 제도적 영역에서 차별금지법의 제정, 2) 민간영역에서 성소수자 친화적인 노동환경 조성, 3) 보건 및 의료 영역에서 성소수자의 (정신)건강과 심리상담의 중요성, 4) 보다 포용적인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마련, 5) 후속 연구에 대한 요청 및 대표성 있는 조사에 성소수자 범주의 포함이 갖는 중요성 등 다섯 가지로 나누어 연구의 함의 및 제언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청년 성소수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전반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제도적 변화는 포괄

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이다. 연구에 참여한 청년 성소수자들은 한국 사회가 성소수자로서 살아가기 힘든 환경이라고 공통적으로 응답하면서 성소수자 인권을 제도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참여자들이 원하는 변화로는 다양한 파트너십에 대한 제도적 인정과 성소수자 친화적인 미디어 환경, 성소수자 포괄적인 성교육, 균형법 추행죄 폐지,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관련 제도적 지원 등에 대한 요구가 컸는데,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법제도적 변화에 대한 관심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변화보다 중요한 것으로 꼽힌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며, 특히 면접조사에 참여한 이들 대부분이 마치 차별금지법이 다른 성소수자 인권 관련 정책의 선결 조건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많은 청년 성소수자들에게 있어서도 성소수자 차별 및 인권 제고와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가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이슈로 수렴되고 있으며, 차별금지법 제정이 그밖의 성소수자 인권 관련 정책 변화의 첫걸음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또, 설문조사 참여자 가운데 성소수자로서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높고, 그 주된 장소가 직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구체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한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 성소수자들의 정치적 욕구와 필요가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차별금지법이 청년 이슈로 인식되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다. 청년 정책이나 청년 이슈가 주로 경제적 불평등과 주거 문제로 수렴되거나 ‘젠더 갈등’으로 이슈화되는 가운데 청년 성소수자가 직장이나 학교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경험하는 차별은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성소수자에 국한된 특수한 문제이자 논의가 불필요한 영역으로 정치권에서 여겨졌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법무부에서 제안된 이후 오랜 시간동안 보수 개신교 집단의 조직적 반대로 수차례 좌절되어 왔으며, 정치권은 언제나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입법 시도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최근 <한겨레>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대 여성의 85%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 종합하면 청년 성소수자의 가장 핵심적인 요구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이며,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2) “평등하고 안전하게!” 성소수자 친화적인 노동환경

1) 한겨레. “스윙보터 20대, 싸늘한 대선 관망...주요 이슈 남-여 괴리 커.” 2021.11.29.

차별금지법과 더불어 중요하고 시급한 변화로는 성소수자 친화적인 노동환경 조성을 꼽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인 만19세부터 만34세 청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지나 사회로 나아가는 길목에 있는 집단이다. 생애주기별로 보면 이는 가족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가꾸어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청년 성소수자의 많은 이들은 구직 과정과 직장에서 단지 성소수자라는 점 때문에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커밍아웃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장 내에서 다양한 혐오 발언 및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가운데 많은 부분이 고용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 정책에 있어서 성소수자에 대한 지원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트랜스젠더 청년들은 구직 과정에서부터 선택권을 제한받는 경우가 많으며, 구직과 직장 내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비율이 대단히 높다. 또, 지난해 5월에 발생한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태 당시 성소수자 확진자들이 아웃팅을 당하고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일터에서 혐오 발언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으나 이러한 코로나로 인한 영향은 제대로 파악되지도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성소수자 친화적인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게 요청된다. 가령 기업이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음을 선언하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채용 과정에서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하며, 차별금지를 명시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며, 성소수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등 성소수자 친화적인 노동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 2017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소수자 차별에 맞서기: 기업을 위한 행동강령」을 발간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다양성을 포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이것이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²⁾ 나아가 민간영역에서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성소수자 친화적인 기업환경 조성을 촉진하거나 강제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3) “나를 지켜요!” 성소수자 친화적인 의료와 상담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한국의 자살률은 OECD 평균의 두 배를 상회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20대의 자살률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도 하다.³⁾

2)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17. Tackling Discrimination against Lesbian, Gay, Bi, Trans, & Intersex People: Standard of Conduct for Business: At a Glance. [『성소수자 친화적 직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성 가이드라인』에 부록으로 번역되어 실려 있음. <http://diverseguide.org/code-of-conduct-summary/>]

즉, 청년 문제로서 자살은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대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 결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청년 성소수자, 특히 트랜스젠더 집단의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 비율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전반적인 건강 상태나 행복도 지표 또한 일반 청년에 비해 청년 성소수자 집단에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청년 성소수자, 특히 트랜스젠더의 정신건강 이슈를 시급한 개입이 필요한 청년 정책의 하나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통한 만남이 단절되는 등 청년 성소수자의 고립감이 커졌을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한 정신건강의 부정적 변화 가능성 또한 높은 상황이다. 이를 위해 성소수자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성소수자 친화적인 의료 환경 조성은 물론이고, 근본적으로는 성소수자가 성소수자로서 차별과 낙인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회 인식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년 성소수자들 가운데 많은 수는 의료시설 및 심리상담 시설이 성소수자에게 전반적으로 비우호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의료 시설에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는데, 이는 상당수의 청년 성소수자가 필요한 의료 및 상담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특히 동성애나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담사를 만난 청년 성소수자는 사회적 차별과 혐오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해소할 길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커다란 위험이 아닐 수 없다.⁴⁾ 또, HIV/AIDS 감염인의 경우 노골적인 치료 거부를 당하기도 한다는 점 또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⁵⁾ 청년 성소수자가 동등한 시민으로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소수자 친화적인 의료 및 상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시급한 이유이다.

4) “우리, 다 함께!” 커밍아웃과 포용적인 커뮤니티

한국 사회가 보다 성소수자에게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일상 속 성소수자의 가시화가 이를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고 답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듯 청년 성소수자들에게 커밍아웃은 여전히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과제와도 같다. 즉, 커밍아웃은 단순히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인정받는 확인의 과정이라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

3) 연합뉴스. “한국 자살률 OECD 1위…20대 여성·10대 남성 크게 늘어.” 2021.09.28.

4) 한겨레. “동성애자에 ‘치료 받으라’...어이없는 상담가.” 2017.02.24.

5)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2016. HIV/AIDS감염인 의료차별/진료거부 실태조사.

직장 내에서 가장 필요한 변화로 조사 참여자들이 꼽은 것이 자유롭게 커밍아웃 할 수 있는 환경인 것이 의미하듯 내가 나로서 당당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정보를 하나 밝히는 것 이상의 큰 의미인 셈이다. 청년 시기는 청소년을 보내고 사회로 진출하는 시기이지만 여전히 가족 및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많은 청년 성소수자는 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의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크게 지고 있다. 가정과 학교, 직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소수자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더불어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역할 또한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심한 한국 사회에서 많은 성소수자들은 자신과 비슷한 존재인 다른 성소수자들과 교류하면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점에 안도하며, 성소수자들이 만들어온 문화 속에서 위안을 얻으며 살아간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에 따라 오프라인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크게 위축되고, 퀴어문화축제 등 성소수자 관련 문화행사도 줄어들면서 청년 성소수자가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또, 성소수자 커뮤니티라는 단일한 이름 아래 묶여있지만, 본 연구에서 드러난 것처럼 보다 비주류에 해당하는 정체성을 지닌 성소수자의 경우 장벽을 느끼고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좀처럼 어울리지 못하고 배제되는 경우도 여전히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문화를 조성하고, 비대면 환경에 맞는 성소수자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요청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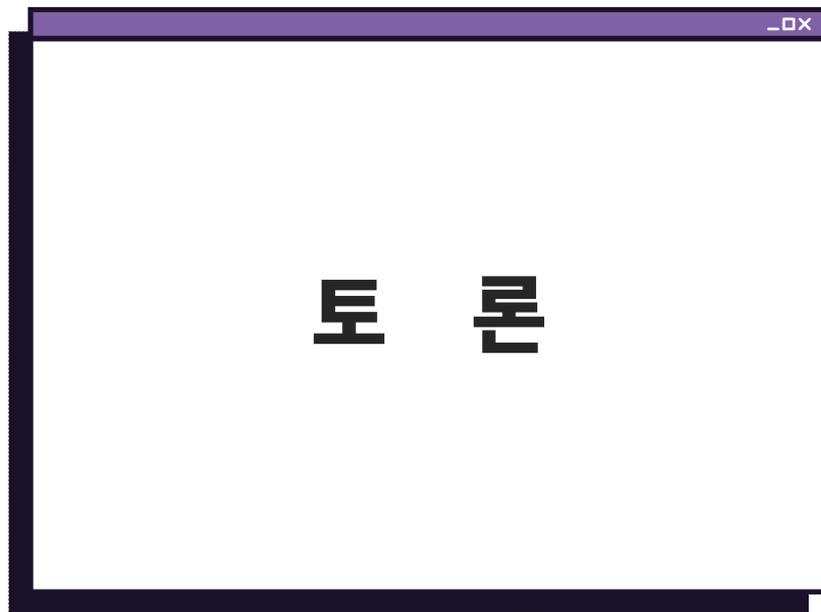
5) “더 많은 조사를!”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하기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에서 더 나아가 성소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조사는 청년 성소수자의 전반적인 욕구와 실태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 결과를 제공한다. 그러나 청년 성소수자가 직장이나 대학에서 다양한 차별을 경험한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구체적인 차별의 경험과 맥락을 파악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으며, 군대나 가족 관계 등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이고 다방면의 후속 조사가 필요하다. 더불어 본 조사에서는 2014년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에 비해 LGBT에 포함되지 않는 판섹슈얼, 에이섹슈얼, 퀴어, 논바이너리, 젠더퀴어 등 다양한 성소수자 정체성으로 스스로 정체화하는 청년 성소수자가 참여한 점을 확인하였다. 향후에는 이처럼 비가시

화된 다양한 성소수자 정체성 집단의 구체적인 욕구와 인식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해외의 경우 이미 다양한 국가기관이 이러한 성소수자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예컨대 영국의 경우 평등부(Government Equalities Office)가 성소수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 교육, 안전, 직장, 법적 권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부의 책임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LGBT Action Plan을 2018년에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경우 국제 인권기구 및 UN 사회권위원회·자유권위원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소수자 인권을 제고할 것을 요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부재한 상황이다.

더불어 청년 성소수자에 대한 보다 대표성 있는 연구가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청년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청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다양한 청년 실태조사가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의 거의 대부분이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청년 성소수자의 욕구와 필요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더불어 국가 단위의 대표성 있는 통계에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한다면 지금까지 포집되지 못해온 청년 성소수자의 삶이 정책적 필요로 전환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대표성 있는 통계 자료와 더불어 청년 성소수자의 특수한 경험을 파악하려는 노력 또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일반 청년에 비해 청년 성소수자가 가진 욕구의 특이성과 이들이 경험하는 차별을 면밀하게 살필 수 있는 지속적인 조사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



토론문

청년 성소수자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할 때

이호림 고려대학교 보건과학과 보건학박사

청년 성소수자 단체인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에서 수행한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조사>는 국내에서 현재까지 수행된 성소수자 대상 설문조사 중 연구참여자가 수가 가장 큰 조사로 2021년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 성소수자의 삶의 단면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본 설문조사는 청년 성소수자의 다양한 사회적 경험 뿐만 아니라 이들의 건강 수준도 다양한 지표를 통해 측정하였기 때문에 청년 성소수자의 건강 수준이 어떠한지 어떤 사회적 요인들이 이들의 건강과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확인하고, 이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법정정책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한국 청년 성소수자의 정신건강 실태

발표에서 소개된 것처럼 본 조사결과는 한국 청년 성소수자의 건강 및 심리상태가 한국 전체 청년층을 대상 수행된 설문조사에서의 결과에 비해 취약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한국 청년 성소수자는 전체 청년층에 비해 자신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편이었고, 주관적 행복도의 평균 점수도 낮은 편이었다. 또한 청년 성소수자의 우울 증상 유병률은 49.8%, 지난 12개월 자살 생각 및 시도는 각각 41.5%, 8.2%로 나타났다. 본 조사와 가장 근접한 시기에 수행된 국가 대표성 있는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청년층의 정신건강 유병률은 지난 일주일 간 우울 증상이 7.52% (2020년 15차 한국복지패널조사), 지난 12개월 자살 생각 및 시도가 각각 4.81%, 0.53% (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 8기 1차년도)였음을 고려할 때, 본 조사에서 나타난 청년 성소수자의 정신건강 실태는 동일한 연령대의 한국 전

체 인구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¹⁾

국외의 경우에도 각 국가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성소수자가 비성소수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취약한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이러한 건강 격차는 성소수자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으로 인해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소수자 스트레스에서 기인한 결과로 이해되고 있다.²⁾ 본 연구에서 조사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직접적 차별이나 폭력 경험이나, 일상생활에서 성소수자 정체성이 드러날까봐 걱정하거나 드러내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일,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인식하는 것 등이 이러한 소수자 스트레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설문조사에서 확인한 성소수자의 취약한 건강 실태는 한국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연구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³⁾ 최근 연구들은 차별과 폭력, “전환치료” 경험,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의 내재화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한국 성소수자의 건강 수준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⁴⁾ 이러한 맥락에서 본 조사에서 나타난 한국 청년 성소수자의 건강 실태와 이러한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 본 조사와 동일한 문항으로 지난 일주일 간의 우울증상(CESD-11)과 지난 12개월간의 자살생각 및 시도를 측정한 국가 대표 성 있는 설문조사의 원시자료를 통해 만 19-34세 참여자의 정신건강 유병률을 구했다. 각 조사의 해당 연령대 참여자 수는 15차 한국 복지패널조사(2020년)는 1,610명, 국민건강영양조사 8기 1차년도(2019년)는 1,123명이었다.

2) Meyer, I. H. (2003). Prejudice, social stress, and mental health in lesbian, gay, and bisexual populations: conceptual issues and research evidence. *Psychological Bulletin*, 129(5), pp.674-697.

3) 한국 성소수자의 건강 실태에 대한 선행 연구 중 성인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건강 격차에 대한 논문으로는 Yi, H., Lee, H., Park, J., Choi, B., & Kim, S.-S. (2017). Health disparities between lesbian, gay, and bisexual adults and the general population in South Korea: Rainbow Connection Project I. *Epidemiology and health*, 39. e2017046.가 있으며, 성인 트랜스젠더의 건강 격차에 대한 논문으로는 Lee, H., Operario, D., van den Berg, J. J., Yi, H., Choo, S., & Kim, S.-S. (2020). Health disparities among transgender adults in South Korea. *Asia Pacific Journal of Public Health*, 32(2-3), pp.103-110.가 있다. 청소년 성소수자의 건강 격차에 대한 논문으로는 Kwak, Y., & Kim, J. S. (2017). Associations between Korean Adolescents' Sexual Orientation and Suicidal Ideation, Plans, Attempts, and Medically Serious Attempts. *Iranian Journal of Public Health*, 46(4), pp.475-484.과 Lee, D. Y., Kim, S. H., Woo, S. Y., Yoon, B. K., & Choi, D. (2016). Associations of Health-Risk Behaviors and Health Cognition With Sexual Orientation Among Adolescents in School: Analysis of Pooled Data From Korean Nationwide Survey From 2008 to 2012. *Medicine (Baltimore)*, 95(21), e3746. 등이 있다.

4) 한국 성소수자의 건강 수준과 다양한 사회적 요인의 연관성에 대한 최신 연구로는 다음의 논문 등이 있다. Lee, H., Park, J., Choi, B., Yi, H., & Kim, S. S. (2021). Association between Discrimin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2,162 Lesbian, Gay, and Bisexual Adults in South Korea: Does Community Connectedness Modify the Association?. *Journal of Homosexuality*, 68(1), pp.70-87. doi: 10.1080/00918369.2019.1624456; Park J, Lee H, Choi B, et al. (2021) Adolescent Bullying Victimization at Secondary School and Adult Suicidality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2152 Lesbian, Gay, and Bisexual Adults in South Korea. *Asia Pacific Journal of Public Health*, doi:10.1177/10105395211073283; Lee, H., Streed Jr, C. G., Yi, H., Choo, S., Kim, S. S. (2021). Sexual Orientation Change Efforts, Depressive Symptoms, and Suicidality Among Lesbian, Gay, and Bisexual Adults: A Cross-Sectional Study in South Korea. *LGBT Health*. doi: 10.1089/lgbt.2020.0501; Lee, H., Operario, D., Yi, H., Choo, S., & Kim, S. S. (2019). Internalized Homophobia, Depressive Symptoms, and Suicidal Ideation Among Lesbian, Gay, and Bisexual Adults in South Korea: An Age-Stratified Analysis. *LGBT Health*, 6(8), pp.393-399. doi: 10.1089/lgbt.2019.0108; Lee, H., Tomita, K., Habarth, J., Operario, D., Yi, H., Choo, S., Kim, S. S. (2020). Internalized transphobia and mental health among transgender adults: A nationwide cross-sectional survey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gender Health*, 21(2), pp.182-193. doi: 10.1080/26895269.2020.1745113.

사회적 경험과 관련한 조사결과는 놀랍지 않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한국 성소수자를 둘러싼 현실을 바라보는 관성적 시선에서 벗어나 주목해야 할 놀라운 사실은 일관되게 보고되어 온 성소수자 건강 실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2022년 현재 민간단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성소수자 대상 HIV/AIDS 예방사업을 제외하면 성소수자의 건강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한국 성소수자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변화

근본적인 차원에서 성소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성소수자를 둘러싼 전반적인 사회문화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건강 격차는 성소수자를 둘러싼 적대적인 사회문화적 환경과 그 환경 내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생애 경험에 의해 크게 결정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랜 시간 동안 정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균형법 92조의 6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동성혼 법제화,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 등의 성소수자 관련 입법 의제들을 성소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거시적 제도적 변화 이외에 정부와 공공기관 및 관련 전문가 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과제로 다음의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성소수자의 보건의료·심리상담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관련 분야 종사자 교육·훈련

한국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이 의료진이나 상담자에게 알려졌을 때 차별이나 편견을 마주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치료와 상담 세팅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거나,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에서 공유되는 정보를 참고해 성소수자에게 친화적인 기관을 찾아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상담 세팅에서 성소수자 정체성에 대한 낙인과 편견을 경험하거나,⁵⁾ 의료인이나 상담사가 성소수자 정체성을 바꾸려는 비과학적인 시도인 “전환치료”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 또한 성소수자에게 친화적인 서

5) 공춘옥, 정윤경, 박수영. (2018). 성소수자(LGB)의 상담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정체성을 중심으로. 질적탐구, 4(4), pp.197-232.

6) 2016년 한국 성인 동성애자·양성애자 2,34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환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참여자는 2.6%였으며, 전환치료 경험이 있는 참여자 중 34.4%가 의료인에게, 42.6%가 상담사에게 전환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Lee, H., Streed Jr, C. G., Yi, H., Choo, S., Kim, S. S. (2021). Sexual Orientation Change Efforts, Depressive Symptoms, and Suicidality Among Lesbian, Gay, and Bisexual Adults: A Cross-Sectional Study in South Korea. LGBT Health. doi: 10.1089/lgbt.2020.0501.

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상담사들도 성소수자 상담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교육, 훈련, 슈퍼비전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⁷⁾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이제 개인의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은 ‘알려져도 괜찮은 정보’를 넘어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알려야 하는 정보’로 변화하고 있다. 연령이나 성별처럼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도 환자·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수집해야 하는 중요한 건강 정보로 인식되고 있으며, 보건의료 현장에서 이러한 정보를 일상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변화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⁸⁾ 이는 성소수자 정체성은 특히 성과 재생산 건강의 측면에서 질병의 예방과 진단, 치료와 관련해 중요한 건강 정보이며, 사회적 낙인과 혐오를 고려할 때 성소수자 개인의 정신건강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성소수자의 보건의료, 심리상담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국 등의 국가의 경우와 같이 보건의료, 심리상담 등 전문직역 종사자에 대한 고등교육 과정에서의 강의와 훈련, 전문가 단체의 보수교육 등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문화적 역량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2021년 서울대 의대에서 처음으로 ‘성소수자 건강권과 의료’라는 제목의 강의를 개설되었고,⁹⁾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의사, 상담사 등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 아카데미를 개설하는 등 일부 의욕 있는 개인 및 기관의 주도로 산발적인 노력이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다. 정부와 전문가 단체들은 이러한 현장에서의 자구적 노력을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육, 훈련의 필요성으로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전달체계를 통해 보다 광범위한 현장 종사자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문화적 역량 교육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성소수자의 건강과 삶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위한 국가 대표성 있는 통계 자료 생산

2022년 현재, 한국의 국가 대표성 있는 설문조사 중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성별이나

7) 유하은, 권경인. (2020). 성소수자(LGBT) 상담에서 상담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人間理解, 41(1), pp. 91-115.

8) Sanders, J. Q., Feit, M. N., & Alper, J. (Eds.). (2013). Collecting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data in electronic health records: workshop summary. National Academies Press; Chris Grasso, Michal J McDowell, Hilary Goldhammer, Alex S Keuroghlian. (2019). Planning and implementing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data collection in electronic health records,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Informatics Association, 26(1), pp.66-70.

9) 한국일보 (2021.3.30). 서울대 의대 '성소수자 의료' 수업 첫 개설... 그들의 눈물 닦아줄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31916250002714>

연령과 같은 인구학적 정보의 일환으로 수집하는 조사는 전무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 용역으로 수행된 두 차례의 단발적 실태조사¹⁰⁾ 이외에 정부나 공공기관의 주도로 성소수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루어진 바 없으며, 가장 최근에 수행된 통계청의 인구총조사(2020년)는 (조사대상에 외국인가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국외에서 결혼을 한 동성 부부도 조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구주와 배우자의 성별이 동일한 경우 입력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 동성 부부의 참여를 배제한 채 진행되었다. 사실상 한국의 국가통계 수준에서 성소수자 시민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정부의 정책의 대상으로도 포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어떤 국가 대표성 있는 설문조사에서도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인구사회학적 정보로 측정하고 있지 않는 상황은 개별 연구자나 연구팀, 다음과 같은 단체가 확률표집을 통해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우며, 한국 성소수자의 삶과 건강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개입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실제 이러한 국가 대표성 있는 자료의 부재로 인해 우리는 한국 전체 인구 중 성소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이며, 이들의 인구 분포는 어떠한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국외의 국가 대표성 있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국내 인구에 대입해 대략적인 규모를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성소수자와 비성소수자의 건강이나 인구사회학적 분포의 차이 등에 대해서도 간접적인 자료나 방법을 통해 제한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 격차의 수준을 엄밀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음의 이번 설문조사와 같이 비확률표집을 통해 수행되어 온 한국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양적 조사는 그 결과를 한국 성소수자 인구 전체에 일반화 할 수 없다는 자료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개별 연구자나 연구팀, 단체는 해결하기 어려운 이러한 통계적 자료의 부재는 국민건강영양조사나 근로환경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 등 국가에서 이미 수행되고 있는 통계조사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측정하는 문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실제 북미와 유럽의 국가들은 국가가 주도하는 다수의 통계조사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측정하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인구센서스의 경우에도 미국은 동성혼이 법제화되기 훨씬 이전인 1990년부터 인구총조사에 가구주와 동거인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범주로 ‘결혼하지 않은 파트너(Unmarried partner)’를 추가하였고, 동거인의 성별과 상관없이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동거 동성커플의 인구 수준의 분포

10)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2014),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2020)

를 조사하기 시작하였다.¹¹⁾ 영국의 경우 2021년부터는 이러한 혼인관계와 관련한 정보에 더해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한 정보도 인구센서스에서 측정하기 시작했으며¹²⁾, 미국 등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국외의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에서도 성소수자의 건강과 삶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위한 국가 수준의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11) Fertility and Family Statistics Branch. (2013).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Same-Sex Couple Households, U.S. Census Bureau

12)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Sex and gender identity question development for Census 2021. <https://www.ons.gov.uk/census/censustransformationprogramme/questiondevelopment/sexandgenderidentityquestiondevelopmentforcensus2021>;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Sexual orientation question development for Census 2021.

<https://www.ons.gov.uk/census/censustransformationprogramme/questiondevelopment/sexualorientationquestiondevelopmentforcensus2021>

토론문

“청년이 되면 우리 사회가 나아질 거라 말할 수 있을까요?”

정민석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평동¹⁾ 대표

1. 연구의 의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청년층의 표심을 얻으려는 후보자들의 청년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에서도 보이지 않는 ‘청년 성소수자’들의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결과가 세상에 처음 선보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3,911명 청년 성소수자들은 연구에 참여하며 그동안 그 누구도 자신들의 이야기에 관심 가져주지 않은 현실을 바꾸고 싶었을 것임. 무엇보다 이 연구가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연구가 극히 드문 상황 속에서 진행된 만큼 본 연구의 함의와 변화에 대한 제안을 대선 후보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국회와 관련 정부 부처에서도 곱씹어보며 청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적극 활용이 되었으면 함.

연구에 참여한 청년 성소수자들이 정체성을 인지한 최초의 시기는 14.7세이고 이를 수용한 시기는 17.8세로 조사되었음. 정체성을 깨닫고 수용해가는 험난한 과정과 학교와 가정에서 겪어 왔을 차별과 혐오는 평동 상담 과정에서 늘 만나고 있는 사례들임. 10대 청소년이 20~30대 청년의 나이가 되어도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가슴 아픈 연구 결과이기도 함. 문제가 벌어지는 장소가 학교에서 직장으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자신을 숨기고 살아가야 하고, 가족들의 태도는 변화가 없고, 차별을 경험했어도 아프다고 말하기보다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을 거란 무력감에 신고조차 하지 못한 현실은 여전히 같

1)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평동은 2015년 2월에 설립되어 7년차 활동을 하고 있는 평동은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상담하고 지원하고 있는 아주 작은 비영리민간단체이다. 내담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적인 생필품 지원과 심리상담 연계, 법률상담 지원, 의료지원 및 동행, 주거연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리된 사업을 확인할 수 있다. <http://ddingdong.kr>

음. 이는 청년 성소수자의 문제로 한정해서 해법을 찾기보다 청소년 시기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차별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임.

자신을 긍정하기보다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걱정이 많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낙인찍힐 것이 두려워 평범한 삶을 인정받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은, 그리고 그것마저 지킬 수 없는 현실은, 청년 성소수자들의 정서적 불안을 더 자극하며 무력감과 우울감 등을 더 강화시키고 있음.

2. 주목하는 연구 결과와 제언

참여자의 기본정보(나이, 성별, 지역, 최종학력, 직업여부 등)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이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질문을 포함하였기에, 연구 결과에서 정체성의 범위가 얼마나 다양한지 드러낼 수 있었음. 동성에 이외의 성적지향이 50%나 된다는 사실,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가진 성소수자들이 구직 과정에서 더 많은 차별을 경험한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었음.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별을 묻는 질문에 남자와 여자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이외의 성별을 규정하는 사람이 표시할 수 있는 항목을 만들고, 더 나아가 성적지향 여부까지 묻는다면, 다양한 연구주제들에서 그동안 가려져 있던 성소수자들의 욕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임.

전체 응답자의 33.6%, 1,313명이 최근 1년 간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지만, 이 중 85.7%가 '항상 일어나는 일이라', '신고해도 달라질 게 없어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조사되었음. 차별이 일어난 장소 역시 학교, 직장, 관공서나 의료기관과 같은 공간은 물론이거니와 화장실, 사우나, 카페/식당과 같은 일상적 공간에서도 차별이 발생하고 있었음. 평동이 2021년 발표한「청소년 성소수자의 탈가정 고민과 경험 기초조사 보고서」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64.7%가 개인의 정체성 때문에 폭력을 경험했지만, 이 중 79.8%가 '신고해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보복을 당할까 봐', '원치 않게 성정체성이 알려질까 봐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조사되었음. 청년 성소수자 60.3%가 가장 중요한 성소수자 관련 정책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선택했다는 점은 차별이 발생해도 신고조차 할 수 없는 현실과 정체성을 깨닫는 순간부터 누적되어 온 차별의 경험을 해결하고 싶은 바람 때문일 것임.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경험을 말해도 괜찮다고 하고, 무엇이 차별인지 알려주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임.

대다수 청년들이 구직의 어려움, 노동의 불안정성 등을 경험하고 있지만, 청년 성소수자

들은 이에 더해 구직 과정 및 직장 내에서 차별을 경험했다(응답자의 26.7%)고 조사되었음. 특히 트랜스젠더 청년들이 경험한 차별은 더 심각했고, 더 열악한 상태(임시직, 시간제, 최저시급 미만 등)에서 불안정 노동을 하고 있었음. 이는 트랜스젠더 청년들이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직업 선택을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반영이기에 단순히 기업문화를 바꾼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노동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와 같이 국가와 공공, 민간 영역에서 의무 고용할 수 있는 할당제 등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청년 성소수자들은 매우 심각한 건강 심리상태로 살아가고 있음. 조사 응답자의 절반이 최근 일주일 동안 우울 증상을 겪었고, 정신과 방문 경험은 37.6%, 정신과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한 경험은 30.8%였음.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 본 적이 있는 청년에 한정해 묻는 질문에 단 11.9%만이 전문가를 만났고, 8.4%가 약물을 처방받았다고 응답한 조사와 비교해 보면 청년 성소수자들은 극한의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는 자살을 생각하거나(41.5%), 자살을 시도하는 결과(8.2%)로도 이어지고 있음. 「청소년 성소수자의 탈가정 고민과 경험 기초조사 보고서」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60.8%가 자살, 자해 시도 또는 충동을 경험하고 조사되었고, 극한의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매일같이 지원하고 있는 명동으로서는 청소년기부터 성인기까지 수십 년째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음. 본 연구 합의에서도 언급했듯이 청년 성소수자들의 건강, 행복, 심리상태가 더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우 시급한 국가적 개입이 필요함. 2021년 초 연이은 트랜스젠더 청년들의 부고 소식은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주었고, 성소수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차별의 현주소를 한국 사회에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음. 이후 서울시자살예방센터에서 성소수자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시도했듯이 국가 차원에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전문가적 개입이 매우 필요한 상황임. 하지만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켜켜이 쌓여있는 차별의 경험을 방치한 채, 의료 환경만 개선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임.

3. 나가며 : 변화의 물꼬

청년 성소수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로서 살아가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 (전체 응답자의 97.1%가 매우 또는 다소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뒤로 물러서는 것도 쉽지 않은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그 어떤 방어막 없이 날카롭고 뾰

죽한 차별과 혐오를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서 있는 자리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음.

정체성을 깨닫고 수용하기 시작한 청소년기부터 자신의 꿈이 영그는 청년기까지 이어져 온 '생존'게임은 본 연구가 제안한 함의의 실천 속에서 종료되고, '공존'하는 사회로 나갈 수 있을 것임. 본 연구 발표를 개최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토론해 준 분들이 마중물이 되어주었으면 함.

토론문

이승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2020년 8월 청년기본법이 시행, 작년 9월에는 제2회 청년의 날이 기념되었다. 이어 2020년 12월에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격차해소, 참여와 권리, 그리고 지속가능성이라는 세 가지의 핵심적 지향 방향을 가지고 수립되었는데, 그간의 일자리 중심의 정책에서 나아가 전반적인 생활과 복지, 주거, 교육, 문화의 측면에서 입체적인 사회안전망을 마련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한 성격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둘러싼 사회와 제도, 정책에 대해 주체적으로 의견을 내어 자신을 위한 정책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정책형성과정에 청년이라는 정책대상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통구조를 제도화한 점이다. 하지만, 청년기본계획과 현재의 청년정책은 청년기를 지나 성인기로 이행하기까지의 기간을 청년으로 개념화하는데 있어 기존의 담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정상가족’과 ‘일반적’ 이행을 가정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동안의 사회정책에서 다루어 온 정책 대상에 대한 경로의존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경로에서 청년의 다양성이 배제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다수가 걷고 있는 궤도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은 정신적, 물질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 소속되어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을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모든 청년을 위한 정책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청년들이 제도적 지원에 포괄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성소수자 청년을 비롯해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청년에 대한 인정과 지원이 정책으로 구체화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한 진단이 필요해보인다. 첫 번째는 청년담론의 치우침에 있다. 청년이 누구인가라는 청년의 표상은 주요하게 언론과 공론장 등을 통해 구성되는 경향이 있다. 그 공론장을 누가 점령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재생산되고 있는가. 파악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는 수도권의 대졸 화이트칼라 청년들의 목소리가 과

다 대표되고, 지방청년, 제조업부분 청년, 다문화가정의 청년 그리고 성소수자 청년들의 목소리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현재는 청년을 둘러싼 갈등을 현실 이상으로 부각시켜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활동되어 정형화된 청년 이미지가 재생산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그간의 정책형성과 정책집행 과정에서의 경로의존성이다. 성소수자의 존재를 고려한 정책형성 및 정책집행의 경험이 부재한 가운데 성소수자 청년이라는 새로운 대상(?)에 대한 정책적 이력이 부재한 가운데, 성소수자 청년의 배제 경로가 유지되고 있다.

이 가운데 발표문의 조사 활동과 이러한 결과의 발표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고무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회가 보다 성소수자에게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일상 속 성소수자의 가시화가 이를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고 답했다. “청년 성소수자들에게 커밍아웃은 여전히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과제로 커밍아웃은 단순히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인정받는 확인의 과정이라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히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커밍아웃이다. 우리 공동체 내에 성소수자가 함께 공존하고 있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한 존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더 드러내야 한다.

성소수자 청년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은 이어 제도적 구체화되어야 지금까지의 경로의존성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청년 성소수자의 많은 이들은 구직 과정과 직장에서 단지 성소수자라는 점 때문에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커밍아웃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장 내에서 다양한 혐오 발언 및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일자리의 양에 대한 집중에서 더 나아가기 위해 청년기본계획에도 일터에서의 안전보장과 직장갑질근절, 성폭력에 예방 및 징벌적 처벌 등이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 강조되었으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문제는 충분히 담겨지지 않았다. 또한 연구 결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청년 성소수자, 특히 트랜스젠더 집단의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 비율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전반적인 건강 상태나 행복도 지표 또한 일반 청년에 비해 청년 성소수자 집단에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청년대상 마음건강바우처 등 마음건강을 위한 정책들도 실시되었으나 청년 성소수자들 가운데 많은 수는 의료시설 및 심리상담 시설이 성소수자에게 전반적으로 비우호적이라고 응답하였다는 결과는 매우 우려스럽다. 이들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소수자 친화적인 의료 및 상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국가 단위의 대표성 있는 통계에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한다면 지금

까지 포집되지 못해온 청년 성소수자의 삶이 정책적 필요로 전환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통계는 청년의 표상을 숫자로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인데, 청년의 다양성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야 이에 대한 이해, 담론, 그리고 정책구성도 가능해질 것이다.

마지막은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이다. 연구에 참여한 청년 성소수자들은 한국 사회가 성소수자로서 살아가기 힘든 환경이라고 공통적으로 응답하면서 성소수자 인권을 제도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지금의 청년에 대한 담론형성 구조와 다양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 제도적 경로의존성에서 경로의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제도적 변화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설문 참여자 가운데 성소수자로서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높고, 그 주된 장소가 직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구제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한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 다양성을 인정하고 더욱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라는 것이 확인된다. 무지개같이 다양한 청년들이 우리의 공동체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토론을 마친다.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최준석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팀 조사관

1. 성소수자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의 법적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제3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용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성소수자와 관련한 인권의 주요 권고

□ 정책권고

■ 제1기 인권NAP(국가인권행동계획)(2006년)

성적 소수자의 기본을 보호하기 위해

- 1) 성적 소수자의 생존권, 안전권, 노동권, 편견과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보장
- 2) 성적 소수자의 재화, 용역, 시설 이용, 정보접근 등에서의 차별해소
- 3) 동성애 편견과 차별을 내포하고 있는 군형법,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정비
- 4) 성전환자 및 동성간 성폭력 피해자를 강간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강간죄 구성요건 중 객체와 범죄행위를 더욱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형법(제297조) 개정
- 5) 성적 소수자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용 교재에 나타난 특정한 성적 지향에 대한 혐오나 편견 내용 수정,
- 6)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 마련,
- 7) 성적 소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상담소 및 쉼터 등의 설치 운영 지원체제 확충

성전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 1) 성별 변경의 판단기준 마련 및 성별 변경 사실의 비공개화 원칙 확립
- 2) 성전환 관련 수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단계적 적용 검토,
- 3) 의료과정에서 비밀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한 관리 감독 및 예방교육 실시

■ 제2기 인권NAP(2011년)

- 1)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 규정의 명문화 및 차별환경 개선노력
- 2) 성적 소수자 인권실태조사 및 상시적 모니터링을 통한 보호
- 3) 성별 변경 결정과정 및 결과의 비공개화 원칙 확립 및 의료과정에서의 비밀보장 등 인권침해 예방 대책 수립
- 4) 성적 소수자에 대한 범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법상 강간죄 규정 및 관련 형사법 규정의 개정 추진
- 5) 강제 아웃팅 피해자 구제 및 가해자 처벌 절차 마련

- 6) 교육 및 홍보, 교과내용의 주기적 수정·보완
- 7) 성적 지향에 대한 청소년 상담원 등의 의무 인권교육 방안 마련
- 8) 군인 동성애자의 인권보호 방안 마련

■ 제3기 인권NAP(2016년)

- 1)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폐지
- 2) 강제 아웃팅 피해자 구제 및 가해자 처벌
- 3) 의무적 군복무제 등을 고려한 성별정정 요건 완화 검토
- 4) 성전환 수술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의 단계적 보장 검토
- 5) 학교 교직원, 공무원(경찰, 군대 포함) 및 보건의료 종사자에 대하여 사회적 소수자 인권교육 지속

□ 진정사건 조사를 통한 성소수자 인권보호 및 피해구제 활동

- 성소수자 행사 체육관 대관 취소로 인한 차별 시정 권고(2019. 4.)
- 성별표현 등을 이유로 한 고궁 무료관람 제외 차별 시정권고(2019. 4.)
- 교내 성소수자 모임 현수막 게시불허 시정권고(2020. 1.)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관위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 차별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전달(2020. 4.)
- 방송사의 영화 방영 관련 성소수자 차별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2021. 7.)
- 공직선거(예비)후보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의견표명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의견표명(2021. 7.)
- 지방의회 의원의 성소수자 혐오표현 방지를 위한 의견표명(2021. 9.)

□ 성소수자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2021. 12.)
-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2021. 12.)

□ 성소수자 관련 성명, 현안 대응 및 단체 협력

- 제8회 ILGA(International Lesbian and Gay Association) ASIA 콘퍼런스 개막식 축하 & UN 성소수자 특별보고관과 별도 간담회(2019. 8.)
- 「국가인권위원회법」 내 '성적 지향' 삭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2019. 11.)

-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성평등기본조례」에서 ‘성별’을 ‘생물학적 남녀’로 한정하려는 시도를 관련 단체와 공동대응 통해 저지(2020. 2.)
- ‘트랜스젠더 하사(故 변희수) 강제 전역 조치’ 관련 대응
 - 전역심사 연기 긴급구제 권고(2020. 1.)
 - 전원위 인용 결정(2020. 12. 14.)
 - 故 변희수 하사 사망에 따른 애도 성명(2021. 3. 4.)
-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위원장 성명 (2020. 5. 14.)
- 故 김기홍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사망에 대한 위원장 애도성명(2021.2.)

- 퀴어문화축제 관련 협력 및 안전보장
 - 퀴어문화축제 홍보 부스 운영 등
 - 인천지방경찰청에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대책 수립 필요하다는 의견표명(2020. 10. 26.), 각 인권사무소는 안전한 축제 개최를 위한 지방경찰청·지자체 등과 협력

□ 성소수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2005)
-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2014)
-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2020)
- 성소수자 차별 관련 해외 입법동향 및 사례 연구(2021)

3. 성소수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유엔의 주요 권고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15. 12. 3.)
- 1) 한국 사회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우려하며 인종, 성적 지향 등 여러 차별 사유를 포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 2) 한국 정부는 혐오발언, 폭력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
 - 3)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간성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체계를 강화하고 균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할 것.
 - 4) 학생들에게 성별 정체성과 관련하여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연령에 적합한 교육을 실

시할 것

- 5) 법적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것
- 6) 공익광고나 공무원 교육 등을 통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도록 함.
- 7) 한국정부는 위원회의 권고 중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등에 관련된 정보를 1년 안에 제공해야 함.

■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17. 10. 6.)

- 당사국이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등 성소수자에 대한 법률상의 차별 및 사실상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특히 다음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 (a) 동성 간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하는「균형법」조항 폐지
 - (b) 사회보장, 재생산 건강, 주거 등에 관하여 차별적이거나 또는 차별적 효과를 초래하는 법 조항 및 규제조항 개정
 - (c)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도입, 성적지향성 및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
 - (d)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등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한 인식제고 활동 실시

[붙임]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2020)」중 당사자 설문조사 결과(요약)

 설문조사 개요

■ 내용 : 트랜스젠더가 경험하는 혐오차별 설문조사(9개 분야)

- 1) 성별 정정 및 신분증
- 2) 가족생활 및 일상
- 3) 학교·교육
- 4) 고용·직장
- 5) 화장실 등 시설이용
- 6) 군대, 구급시설 등 국가기관
- 7) 의료적 조치 및 의료접근성
- 8) 기타 혐오차별
- 9) 건강수준

■ 대상 : 한국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트랜스젠더 591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설문 조사 결과

○ 응답자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응답자수 591명)

정체성	응답자 수	비율(%)
트랜스여성	189	32
트랜스남성	111	18.8
논바이너리 지정성별 여성	221	37.4
논바이너리 지정성별 남성	70	11.8.

○ 법적 성별 정정

① 성별정정 여부(응답자 583명)

성별정정 여부	응답자 수	비율(%)
법적 성별 정정 완료	47	8.0
법적 성별정정 절차 진행 중	28	4.7
시도한 적 없음	508	86.0

② 성별정정 시도 않은 이유(응답자 508명, 중복답변 가능)

성별정정 시도하지 않은 이유	응답자 수	비율(%)
의료조치 비용 부담	229	58.9
법적 성별 절차의 복잡함	203	40.0
성전환관련 의료적 조치에 대한 건강상 부담	150	29.5
완료후 구직의 어려움	146	28.7
마음의 준비가 안되서	138	27.2
성별을 정정할 의향이 없음	132	26.0
의료적 조치를 받은 것을 원하지 않음	85	16.7
가족,연인,파트너,배우자 등의 반대	53	10.4
현재 혼인중이기 때문에	4	0.8
미성년 자녀가 있기때문	3	0.6

③ 성별정정 시도시 경험한 어려움(응답수 82명, 중복응답 가능)

항목	응답자 수	비율(%)
의료적 조치와 관련한 요건 갖추기	64	78.1
서류 준비 및 작성	50	61.0
정확한 정보 찾기	39	47.6
법원의 심리과정	26	31.7
가족들의 반대	23	28.1
기타	9	11.0
어려운 점 없음	2	2.4

○ 신분증 제시 및 관공서 이용 경험

① 신분증 제시 등의 상황에서 부당대우 우려 일상 용무 포기 경험(응답 554명, 중복응답 가능)

항목	응답자 수	비율(%)
----	-------	-------

병원 등 의료기관	119	21.5
성인인증이 필요한 담배, 술 구입	91	16.4
보험가입 및 상담	83	15.0
은행방문 및 상담	79	14.3
선거 투표 참여	58	10.5
인터넷 가입 및 변경	51	9.2
증명서 발급	47	8.5
본인 명의 주택 매매, 임대 계약	45	8.1
여권발급	38	6.9
포기경험 없음	361	65.2

② 2020년 총선 투표 불참 이유(응답자 115명)

항목	응답자 수	비율(%)
투표에 관심이 없어서	31	5.3
시간이 없어서	30	5.1
신분증 확인으로 법적 성별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27	4.6
신분증 확인으로 현장에서 주목받는 것이 두려워서	26	4.4
기타	24	4.1

○ 가족생활 및 일상

① 트랜스젠더 정체성에 대한 가족의 지지 수준

항목	응답자 수	비율(%)
반대하거나 무시한다	152	25.7
반대하거나 무시하지도 않는다	96	16.2
지지해준다	140	23.7
가족중 내가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다	203	34.4

②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관련한 가족내 경험(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알고 있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응답자 373명, 중복답변 가능)

항목	응답자 수	비율(%)
트랜스젠더인걸 알지만 모른체했다	211	56.6

웃이나 화장등 원하는 성별표현을 못하게 했다	164	44.0
언어적 폭력을 가했다	147	39.4
오랜시간동안 대화하지 않으려고 했다	104	27.9
경제적 지원을 끊었다	48	12.9
신체적 폭력을 가했다	39	10.5
관계를 끊었다	37	9.9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 상담사 또는 종교인에게 데려갔다	37	9.9
집에서 내쫓았다	35	9.4
법적 성별 정정에 필요한 부모동의서를 써주지 않았다	20	5.4
위와 같은 경험이 없다	76	20.4

③ 일상생활에서 타인으로부터 성별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험
(응답자 591명, 중복답변)

항목	응답자 수	비율(%)
반복적으로 나의 성별정체성을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하거나 나를 부르는 성별에 따른 호칭(누나/언니, 형/오빠)를 정정해주어야 한다.	346	58.7
자신의 성별정체성대로 인식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423	71.9
사람들이 내 성별정체성을 제대로 인지하게 하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451	76.7
사람들이 나의 성별 정체성을 제대로 받아들여야 하려면 나는 “과하게 남성적”이거나 “과하게 여성적”이어야 한다	278	47.2
내 외모나 몸 때문에 사람들은 내 성별 정체성을 존중하지 않는다	391	66.4
사람들은 내 성별정체성을 내가 바라보는 것과 다르게 보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434	73.7

○ 학교·교육 영역

① 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교사의 성소수자 비하 발언을 들은 경험(응답자수 585명)

항목	응답자 수	비율(%)
있다	392	67.0
없다	193	33.0

② 대학교에서 교수나 강사의 성소수자 비하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접한 경험(응답자 469명)

항목	응답자 수	비율(%)
교수나 강사가 수업중에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199	42.4
교수나 강사가 수업 외의 시간에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116	24.7
교수나 강사가 수업중에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 담긴 수업자료를 활용했다	107	22.8

○ 고용·직장영역

①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관련하여 직장에 지원을 포기한 경험(응답자 469명)

항목	응답자 수	비율(%)
있다	268	57.1
없다	201	42.9

② 구직활동 경험자중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관련한 구직, 채용과정에서의 경험
(응답자 467명, 중복답변 가능)

항목	응답자 수	비율(%)
내 외모, 복장, 말투, 행동 등이 남자/여자답지 못하다고 부정적인 반응이나 평가를 받았다	225	48.2
주민등록번호에 제시된 성별과 외모 또는 성별표현이 일치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173	37.0
지원서류를 제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출신학교 및 병역사항기재, 사진첨부)	126	27.0
서류에 법적 성별을 정정한 것이 드러날 수 있는 대기업이나 관공서에 지원하는 것을 포기했다	75	16.1
입사가 취소되거나 채용이 거부되었다	74	15.9
기타	31	6.6
위와 같은 경험이 없다	133	28.5

③ 현재 직장에서의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관련한 괴롭힘
(응답자 158명, 중복응답 가능)

항목	응답자 수	비율(%)
용모, 말투, 행동 등이 남성 또는 여성답지 못하다고 반복적으로 지적당함	42	26.6
내 정체성에 대해 불필요한 질문을 함	27	17.1
내 정체성을 동의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림	14	8.9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경험함	13	8.2
직장내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나 업무외 모임, 행사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당함	5	3.2
나에게 중요한 정보를 일부러 알려주지 않음	4	2.5
기타 괴롭힘	8	5.1
위와 같은 경험이 없음	97	61.4

○ 화장실 등 공공시설 이용

① 지난 12개월간 성별 분리된 공중 화장실에서의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관련된 경험(응답자 589명, 중복응답 가능)

항목	응답자 수	비율(%)
부당한 대우나 불쾌한 시선을 받을까봐 내 성별 정체성과 다른 시설을 이용했음	241	40.9
화장실에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지 않았음	231	39.2
멀더라도 일부러 남녀공용 혹은 장애인 화장실이나 인적이 드문 화장실을 이용했음	219	37.2
부당한 대우나 불쾌한 시선을 받을까봐 화장실 이용을 포기했음	212	36.0
모욕적인 발언이나 불필요한 질문을 들음	97	16.5
화장실 이용을 제지당함	72	12.2
다른 경비원이나 경찰에 신고했음	12	2.0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당했음	7	1.2
기타	33	5.6
공중화장실 이용시 부정적 경험없음	171	29.0

○ 의료적 조치 및 의료접근성

① 성주체적 관련 정신과 진단(응답수 590명)

항목	응답자 수	비율(%)
받았음	291	49.3
받지 않았음	299	50.7

■ 응답자의 49.3%(291명)가 성주체성 장애 관련 정신과 진단을 받았고, 호르몬 요법(250명,

42.4%), 성전환 관련 외과적 수술(123명, 20.9%) 경험이 있다고 응답

② 호르몬 요법 여부(응답자 589명)

항목	응답자 수	비율(%)
현재 받고 있음	250	42.4
과거 받았으나 현재 중단중	28	4.8
받은 적 없음	311	52.8

③ 성전환 관련 외과적 수술을 한가지라도 받은 경험(응답자 590명)

항목	응답자 수	비율(%)
받았음	123	20.9
받지 않았음	467	79.2

④ 외과적 수술을 받지 않은 이유(응답자 466명, 중복응답 가능)

항목	수	비율(%)
비용이 부담되어서	331	71.0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176	37.8
구직, 직장생활 등 경제적 활동에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서	154	33.1
수술에 필요한 의료적 요건을 맞추지 못해서	152	32.6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145	31.1
수술과정이 너무 위험해서	143	30.7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125	26.8
만족스러운 성기능을 가질 수 없어서	94	20.2
가족, 지인의 반대로	78	16.7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어서	64	13.7

⑤ 지난 12개월간 성전환 관련 의료적 조치를 위해 방문한 의료기관에서의 경험(응답자 351명, 중복응답 가능)

항목	응답자 수	비율(%)
트랜스젠더 친화적인 의료기관을 찾아서 이용함	257	73.2
의료인, 직원 등이 접수된 내 이름 또는 성별이 맞는지 물었음.	59	16.8
적절한 질료를 받기 위해 의료진에서 성전환 관련 의료적 조치에 대해 가르쳐줬음.	57	16.2
모욕적인 발언이나 불필요한 질문을 들음	29	8.3

성전환 관련 상담, 진단, 의료조치를 거부당함	26	7.4
(성인일 때) 성전환 관련 수술시, 부모의 동의서를 요구받음	12	3.4
부당한 검사나 치료를 요구받음	8	2.3
기타	5	1.4
위와 같은 경험 없음	70	19.9

⑥ 지난 12개월간 일반적 의료이용을 위해 방문한 의료기관에서의 경험
(응답자 526명, 중복응답 가능)

항목	응답자 수	비율(%)
내 성별 정체성에 맞지 않는 입원실이나 탈의실 등을 이용했음.	174	33.1
의료인, 직원 등이 접수된 내 이름 또는 성별이 맞는지 물었음.	150	28.5
모욕적인 발언이나 불필요한 질문을 들음	56	10.7
상담, 진단, 의료조치를 거부당함	8	1.5
부당한 검사나 치료를 요구받음	4	0.8
기타 경험	16	3.0
위와 같은 경험 없음	244	46.4

⑦ 지난 12개월 트랜스젠더 정체성관련 의료기관 이용 포기 경험(응답자 588명)

항목	응답자 수	비율(%)
의료기관에 방문할 필요가 없었음	145	24.7
필요시 매번 의료기관에 방문했음	279	47.5
필요가 있었지만 포기한 적 있음	164	27.9

○ 기타 혐오차별

① 지난 12개월동안의 차별의 경험과 그 이유(응답자 588명, 중복응답 가능)

항목	응답자 수	비율(%)
차별경험 있음	501	85.2
트랜스젠더 정체성 또는 성별표현 때문에	384	65.3
성별 때문에(성차별)	312	53.1
키와 몸무게를 포함한 외모 때문에	235	40.0
성적 지향 때문에	226	38.4
나이 때문에	131	22.3

경제적 상황 때문에	121	20.6
학력/학벌 때문에	102	17.4
질병 유무 때문에	64	10.9
출신지역 때문에	55	9.4
가족 형태 때문에	36	6.1
장애 때문에	33	5.6
혼인 여부 때문에	23	3.9
종교 때문에	18	3.1
국적/인종 때문에	18	3.1
기타 이유 때문에	49	8.3
차별 경험 없음	87	14.8

② 미디어를 통한 트랜스젠더 혐오표현 경험(응답자 590명)

항목	있다		없다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방송, 신문사, 인터넷 뉴스 등 언론	515	87.3	75	12.7
트위터나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인터넷	573	97.1	17	2.9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등 영상매체	449	76.1	141	23.9

③ 특정 사건(변희수하사, 숙대 트랜스여성 입학포기 사건)과 관련한 혐오표현 경험 및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반응 때문에 힘들

항목	혐오표현 접한 경험 있다		사회적 반응으로 인해 힘들었다.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변희수 하사 전역조치 (응답자 573명)	543	94.8	500	87.6
숙명여대 신입생 트랜스여성 입학포기사건(응답자 568명)	556	97.9	518	91.5

토론문

성소수자 통계조사 관련 논의

김보경 통계청 통계정책과 과장



성소수자 통계조사 관련 논의

2022. 2. 3.(목)
통계청 통계정책과

1. 논의 배경

- 성소수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으로 포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증거, 통계, 데이터 등이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21년 말 국가승인통계 및 실태조사를 통해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의 존재를 파악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음

통계청은 성소수자 관련 통계조사 실시와 관련된 쟁점들을 검토



2. 주제의 특수성 - '민감정보'

- 성소수자 관련 조사항목은 개인정보보호법 상 '민감정보'에 해당됨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경우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통계작성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에 의해 해당 규정의 적용이 배제

*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 성소수자 관련 항목은 개인정보보호법 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조사항목을 신설하는 경우 신중히 처리할 필요

3. 인구주택총조사 성별 항목 추가 검토

-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의 인구, 가구, 주택에 대해 조사하여 주요 정책의 수립과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이는 중요한 국가통계조사 중 하나
- 연구용역을 통해 총조사 성별 조사항목을 검토

<표> 한국, 일본, 영국, 미국, 캐나다 인구주택총조사 성별 조사항목 비교

한국(2020) 인구주택총조사	일본(2020) 국세조사	영국(2021) 인구센서스	미국(2020) 인구센서스	캐나다(2021) 인구센서스
조건 없이 성 질문	조건 없이 성 질문	출생시 등록된 성 유지 여부 (자율응답)	조건 없이 성 질문	출생 시 성, 현재 성



3. 인구주택총조사 성별 항목 추가 검토

-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 거부가 증가한 바 있음
 - * 출산시기 및 사망자녀수, 결혼시기, 교육정도 등
- 성소수자 관련 조사항목의 경우 더욱 민감한 항목이므로 사회적 합의, 현장조사 가능성, 조사 불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
- 통계청에서는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사가가능성을 검토하고, 2024년 하반기에 본조사 포함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4. 승인통계 조사항목 관련 검토

- 우리나라의 통계생산체계는 분산형 통계생산체계로, 각 부처에서 정책에 필요한 통계를 직접 생산하고 통계청은 중앙통계기관으로서 이에 대한 관리를 수행
- 특정 통계조사 시 어떤 조사항목을 포함할지는 통계작성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이는 성소수자 관련 항목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4. 승인통계 조사항목 관련 검토

- 한편, 성소수자 관련 신뢰성 있는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표본추출틀(명부)이 선행 구축되어야 함
- 현재는 표본틀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신뢰성 있는 통계 생산이 어려운 상황
- 통계청에서는 신뢰성 있는 표본추출틀 미확보를 이유로 성매매실태조사*, 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 등의 통계를 승인하지 않은 바 있음

* 성매매실태조사(여성가족부) : 다양해지는 성매매를 포괄하는 표본추출틀 부재

** 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보건복지부) : 표본추출틀(전문조사기관 보유 온라인 패널)과 실제 모집단(시도별 주민등록인구의 지역*연령대별 여성인구비중 차이로 표본의 편향 발생

4. 승인통계 조사항목 관련 검토

- 통계청에서는 통계작성기관이 성소수자 관련 조사항목을 포함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할 예정
- 다만 신뢰성의 문제 등으로 국가승인통계로 승인이 어려운 경우* 시험적으로 작성**하고, 공표가 필요한 경우 이용자 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공표 후 활용 가능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③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적합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수량적 정보로서 통계법 적용 제외(통계법 시행령 제2조)

*** 국가통계가 아님을 명시하고 작성 개요 등의 이용상의 유의점을 충분히 제공

토론문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해외의 입법례와 시사점¹⁾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가족구성권 보장 관련 해외의 입법 현황

○ 가족구성권 보장 관련 주요국 입법 동향

- 프랑스

- PACS(Pacte civil de solidarité) 1999년 (이성, 동성 모두 적용)
연대계약은 이성 또는 동성의 성년인 두 자연인이 공동생활을 영위할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프랑스 민법 제515-1조)(송효진외, 2021:186)
- 동거(concubinage) 이성, 동성 모두 적용(1999년부터 동성커플 포함)
동거는 안정성과 지속성이라는 특징이 있는 공동생활의 특성을 지닌, 함께하는 두 이성 혹은 동성 간의 사실상 결합이다.(프랑스 민법 제515-8조)(송효진외, 2021:193)
- 법률혼에서의 동성혼 인정(LOI n° 2013-404 du 17 mai 2013 ouvrant le mariage aux couples de personnes de même sexe) 2013년
제143조: 혼인은 동성 또는 이성의 두 사람에 의해 성립된다.(프랑스 민법 제143조)(송효진외, 2021:196)

1) 본 토론문은 선행연구 자료들을 인용하여 연구자 개인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 스웨덴(송효진외, 2021:199-208)

- 동거 (Cohabitees Act (2003) (Sambolagen)) Homosexual Cohabitees Act 1987로 동성커플은 별도로 규정하다가 2003년 법으로 대체입법. 이성, 동성 모두 규정
- 공인 파트너십 법(Registered Partnership Act[Lag om registrerat partnerskap: utfärdad den 23 juni 1994]), 1995년 동성커플에 적용. 이후 동성혼 인정으로 2009년 4월 종료
- 동성혼 인정(Marriage Code). 2009년 Partnership Act의 폐지와 Marriage Code에서 이성, 동성 모두의 혼인을 인정

- 독일

- 등록된 생활동반자관계(동성커플만 적용, 동성혼제도 도입 후 새로운 동반자관계 신청은 불가, 기존의 생활동반자 관계는 혼인으로 전환). 등록된 생활동반자관계(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법 2001년(송효진외, 2021:239)
- 법률혼에서 동성혼 인정. 2017년. 「동성인 혼인체결권 도입을 위한 법률(Gesetz zur Einführung des Rechts auf Eheschließung für Personen gleichen Geschlechts: EheöffnungsG)」 2017.7. 20. 제정. 2017년 9월 30일 이후부터 기존의 생활동반자관계를 동성혼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이 동성혼을 체결할 수 있음. 혼인은 독일 민법 적용.(송효진외, 2021:240-241)

- 영국(송효진외, 2021:232-233)

- Civil Partnership 제도(2004년 동성커플만 신청/2019년 이성에게도 적용) 2019년 시민 파트너십 혼인 및 사망(등록 등)(Civil Partnerships, Marriages and Deaths (Registration etc) Act 2019)」법으로 동성 뿐 아니라 이성에게도 적용 확대

· 법률혼-동성 2014년 합법화. Marriage(Same Sex Couples) Act 2014

- 대만

· 동성결합관계-혼인 인정 「사법원석자제748호해석시행법(司法院釋字第七四八號解釋施行法) 2019년 시행

서로 같은 성별인 2인이 공동생활을 영위할 목적으로 친밀성과 배타성을 모두 갖는 영구적인 결합관계를 성립할(성립시킬) 수 있다.(司法院釋字第七四八號解釋施行法 제2조)(송효진외, 2021:214--215)

· 혼인 이외의 동거 관련 제도는 없음

○ 시사점

- 위의 해외 입법 사례에서는 법률혼에 있어서 이성과 동성 모두 제도 이용이 가능함. 2)

- 동성혼을 허용하기 전까지의 단계로서 파트너 관계에 대한 제도가 발전되어 온 측면이 있는가 하면, 동성에게만 허용되었던 PACS(프랑스)나 파트너십(영국) 제도가 오히려 이성 커플의 삶의 방식과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확대되어 온 사례 등을 살펴볼 수 있음.(송효진외, 2021:332)

- 위의 해외 입법례는 국가마다 사회적 맥락에 따라 양상은 다소 다르게 나타나지만 ‘법률혼을 통한 가족구성 선택권’도 더 열어주고, ‘법률혼이 아닌 다른 방식의 가족구성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제도화하여 열어주는 입법적 노력을 해왔음을 알 수 있음(송효진외, 2021:298).

2) 일본의 경우, 동성혼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는 않지만, 성적 소수자 커플에게 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파트너십 제도가 2015년 도쿄도의 시부야구 및 세타가야구에서 도입되었으며, 2021년 4월 1일 현재 전국 103개 지자체가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國分麻里, 2021:214).

○ 참고자료- 가족구성권 보장 관련 유럽 국가 현황³⁾

〈표〉 국가별 혼인/등록 파트너십/ 동거 보호 현황

관할	조사 시기	혼인		등록 파트너십		동거	
		이성	동성	이성	동성	이성	동성
루마니아	2015	0	X	X	X	X+	X
불가리아	2015	0	X	X	X	0	X+
폴란드	2015	0	X	X	X	0	0
북아일랜드	2016	0	X	X	0	0-	0-
슬로베니아	2015	0	X	X	0	0-	X+
이탈리아	2016	0	X	X	0	0	0
체코	2015	0	X	X	0	0	0
헝가리	2015	0	X	X	0	0	0
그리스	2016	0	X	0	X	X+	X+
네덜란드	2015	0	0	0	0	0	0
벨기에	2015	0	0	0	0	0	0
잉글랜드와 웨일즈	2017	0	0	0	0	0-	0-
프랑스	2015	0	0	0	0	0	0
몰타	2017	0	0	0	X	X	X
독일	2017	0	0	X	0	0	0
스코틀랜드	2016	0	0	X	0	0-	0-
오스트리아	2017	0	0	X	0	0	0
핀란드	2017	0	0	X	0	0-	0-
포르투갈	2015	0	0	X	X	0	0
아이슬란드	2015	0	0	X	X+	0	0
아일랜드	2016	0	0	X	X	0	0
노르웨이	2015	0	0	X	X+	0	0
스웨덴	2015	0	0	X	X+	0	0

출처: 유럽 The Laws And Families Database 2017에 기반하여 2017년 이후 입법사항 포함하여 수정(박복순외(2019:68)에서 재인용)

3) 최근의 유럽에서의 동성혼인 및 동성결합 입법 동향에 대한 심층적 연구로는 윤진수(2021), 유럽에서의 동성혼인 및 동성결합에 관한 최근 동향, 가족법연구 제35권 2호(2021.7), 1-41면. 참조.

“가장 중요한 성소수자 관련 정책”-조사결과에 대하여

- 발제문에서 소개하신 설문 문항에 포함된 정책과제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해소와 권리보장을 위해 순위를 선택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두 중요한 과제들임.
-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과제들은 결국 가족을 구성하기 위하여 제도를 이용할 권리와, 기존의 제도가 아닌 다른 방식의 관계를 통해 가족을 구성하고자 하는 사람들 모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임.
- 그런 의미에서 조사결과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1순위)에 이어 ‘동성커플에 대한 법적 결혼 인정’(2위)과 ‘결혼이 아닌 동성커플을 위한 파트너 관계 법적 인정’(3위)가 함께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앞으로의 입법 방향을 고민할 때에 참조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됨.
- 독일이나 스웨덴의 경우 생활동반자 제도를 동성만을 위해 제정하였다가 동성혼을 인정하면서 폐지한 반면, 법률혼과 법률혼이 아닌 파트너십 관계를 위한 제도를 병존시키면서 결국 이성과 동성 모두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다양한 선택지를 열어준 프랑스나 영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음.
- 아직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관련 입법안이 발의된 바가 없으나, 본 토론회를 계기로 적극적인 입법 논의 및 발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참고문헌

- 國分麻里(2021), 지방자치단체의 동성 파트너십 제도 도입 과정과 요인-이바라키현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36.1,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213-238
- 박복순 외(2019), 가족다양성 포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윤진수(2021), 유럽에서의 동성혼인 및 동성결합에 관한 최근 동향, 가족법연구 제35권 2호(2021.7), 1-41면
- 송효진 외(2021), 개인화 시대, 미래가족변화에 대응하는 포용적 법제 구축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청년 성소수자 자살예방 활성화 방안

이구상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사업총괄본부장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020년 한해 13,195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하루에 약 36명, 분 단위로 계산하면 약 40분에 1명 수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살의 심각성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15,906명으로 정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연도에 따라 일부 증감이 반복되기도 하나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급격한 자살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04년부터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2011년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살 예방이 공약에 최초로 포함되면서 관계부처 합동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설치, 보건복지부 내 자살예방정책과 신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설립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관계부처 합동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은 보건 중심 자살예방 관점에서 벗어나 범부처 차원의 자살예방 정책을 수립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한정된 여건과 자원 안에서 시급성과 효과성 또는 효율성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때 일부 소외 계층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외 계층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편견이 심하여 소외 계층 스스로 도움이 목소리를 내지 못할 때가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발표된 연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성소수자 자신이 겪고 있는 다양한 혼란과 어려움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자살사고나 자살 시도율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것은 성소수자의 자살예방을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할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소수자를 위한 효과적이고 근거중심적인 자살예방 전략은 무엇이 있을지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시행 지침을 참고로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상황 분석입니다. 성소수자의 자살 위험 실태분석을 통한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여 전략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데이터에 대한 인식 및 활용 수준을 높이고 통합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다부문 협력입니다. 자살예방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소수자의 자살문제는 자살예방 관련 전문기관이나 성소수자 권익 지원 조직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으므로 상호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로는 인식개선 및 옹호입니다. 자살에 대한 인식수준 향상과 함께 자살위험에 처한 성소수자를 식별하는 능력을 키우고, 자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인식수준 향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로는 역량개발입니다. 성적소수자의 자살위험 수준을 판단하는 능력, 발견 시 성소수자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자살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생명지킴이 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섯째는 재정확보입니다. 성적소수자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뿐만 아니라 기부, 후원 등 민간 자원 조달을 통한 폭넓은 자금원을 확보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시 및 평가, 모니터링 체계입니다. 실시간 성소수자 자살 감시동향체계를 통한 사후대응과 함께 성소수자 자살예방의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시키는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도움을 요청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성소수자가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성소수자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권리와 주장이 수용될 수 있

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성소수자의 상황을 고려한 근거중심 자살 예방 전략체계 마련과 함께 성소수자 권익 지원 조직과 자살예방 전문기관이 상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면, 자살예방이라는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성소수자 청년을 말하다 국회 토론회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결과발표:
차별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을 중심으로